가요계 형님들이 몰려온다

metro

메트로 2014년 8월 22일 금요일 제3041호 www.metroseoul.co.kr

정명훈 첫 피아노 리사이틀

인천AG 조 추첨 다음달 19일 개막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종목의 번호를 가를 조추첨이 21일 인천의 하버파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됐다. 여홍철 교수가 남자 기계체조 대진순서를 추첨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축구 최순호, 농구 박찬숙, 배구 김호철, 체조 여홍철, 핸드볼 임오경, 배드민턴 라경민 등 과거 스타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에서는 김세만 선수단장과 체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23면> /연합뉴스

유통사 미래 마케터 양성 나섰다

서포터즈 모집··실무기회 주고 아이디어 얻고 제품체험단 넘어 홍보·콘텐츠 제작 참여까지

기업들이 '미래의 마케터' 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이 브랜드 홍보대사격인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에 한창이다.

기존 대학생 관련 프로그램이 공모전, 사회공헌 등 단순히 기업을 알리는 차원에 국한돼 있었다면 최근에는 학생들을 마케팅 현장에 직접 참여시켜 '준비된 마케터'로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서포터즈 활동으로 스펙을 높이고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입사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은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에겐 실무경험을 쌓고, 기업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어 '윈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신한 아이디어 적극 반영

뷰티업체들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 창구로 대학생들을 활용하고 있다. 화장품 서포터즈는 일종의 '제품 체험단'이지만 근래 들어서는 브랜드 홍보뿐 아니라 관련 콘텐츠 제작·기획안 진행 등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에뛰드하우스는 국내 재학중인 내·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뷰티즌' 을 운영 중이다. 단순 리뷰에서 벗어나 뷰티 콘텐츠를 생산하고 각종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뷰티 트렌드 리더'로 'K 뷰티'를 널리 전파할 '글로벌팀' 등 4가지 분야로 세분화해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 특히 해외 지점 방문 수료 후 인턴 등의 기회를 줌으로써 열정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소망화장품에서는 회사 마케팅 실무진들이 전문 강사로 나서 관련 지식을 알려주고, 학생들은 조별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과제를 수행한다.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신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여대생들에게 관심이 높은 편이다.

뷰티업계 한 관계자는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은 제품의 주 고객층인 대학생들의 생생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약품은 대학생 온라인 마케터를 마케팅 기획부터 광고 영상 제작까지 현장 업무에 직접 참여시킨다. 실제로 올초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모았던 '프링클 쌩군녀' 시리즈는 예비 마케터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회사 측은 앞으로도 대학생들이 제작한 온라인 광고 콘텐츠를 실제 현대약품의 마케팅 소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대신 기업이 나서 마케팅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KT&G는 대학생에게 실전 마케팅을 코칭해주는 '상상마케팅스쿨'을 열고 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95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상상마케팅스쿨은 주요 기업 마케팅 실무자의 강의와 마케팅 경쟁 프리젠테이션이 결합된 형태로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대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마케팅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보다 실무 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앞세워 미래의 마케터 양성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metroseoul.co.kr

석촌지하차도 인근 또 지반침하

900m 떨어진 인도 1.5m↓ 주민들 긴장

서울 석촌지하차도 주변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7개의 대형 싱크홀과 동공이 발견된 석촌지하차도 지하철 9호선 공사장 인근에서 인도가 1.5m 깊이로 내려앉는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오후 3시께 송파구 방이동 방이사거리에서 인도가 침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침하된 면적은 가로 0.6m, 세로 2m이며 깊이는 1.5m로 알려졌다.

이 장소는 석촌지하차도와는 900여m 가량 떨어져 있다. 지하철 9호선 공사장과는 60m 거리이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현장에 조사단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석촌지하차도에서 발견된 동공 중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던 동공 3개의 규모를 발표했다. 규

9호선 공사장 인근 싱크홀로 침하된 인도.

모가 확인된 5번째 동공은 석촌지하차도 박스 구간에서 김포공항 방면에 있다. 지난 13일 발견된 싱크홀 80m가량 동공 인근이며 폭 4.6m·연장 16m·깊이 3m 규모다.

이어 여섯번째 동공과 일곱번째 동공은 모두 석촌지하차도 램프구간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각각 폭 5m·연장 7.4m·깊이 2.5m, 폭 4m·연장 5m·깊이 2.3m 규모였다.

서울시는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동공 발생지점 인근 모든 건물에 균열, 기울기 등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달고 특별계측기동반을 만들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는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수방사 방문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진행 중인 21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내 합동작전본부를 방문,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현대차 노조 부분 파업

노조 "회사 제시안 없었다" vs 회사 "노사 모두 피해자 전락할 것"

현대자동차 노조는 22일 주간 1·2조 각 2시간 부분파업하기로 했다. 노조는 23일과 24일 주말특근도 거부한다.

노조는 21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7시 출근하는 1조 근로자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출근하는 2조는 오후 10시 10분부터 각각 파업할 예정이다.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2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간 현격한 의견차를 이유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이를 합법 파업의 근거로 제시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9일부터 집행부 간부와 대의원들이 철야농성과 출근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또 지난 14일에는 전체 조합원 4만7262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70%로 통과시켰다.

회사는 그러나 "통상임금 확대안은 2012년 노사협상 때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으므로 법원의 판결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은 부적절한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통상임금 확대 등 노조의 요구 하나하나가 회사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민감한 부분이며, 하나를 얻기 위해 염을 잃을 수 있는 화인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같이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협에 들어갔지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조현정기자 hjcho@metroseoul.co.kr

하나·외환은행, 통합 앞선 과제는

기자 수첩
박 아 란
<경제산업부 기자>

지난 20일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에는 붉은 띠를 두른 사람들이 모였다.

무려 3500명에 이르는 이들의 정체는 외환은행 수도권 지역 노동조합원들이었다. 조합원들은 저마다 피켓을 들고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한다는 내용의 '2·17 노사정 합의서' 준수를 외쳤다.

전날 하나·외환 은행이 조기 통합을 공식 선언한데에 따른 투쟁이었다.

앞서 지난 19일 하나·외환은행은 통합을 위한 양행 은행장 전언식'을 열고 조기통합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3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조기통합을 언급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와 함께 두 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통합을 결의하고 통합계약서를 승인하는 등 공식적인 합병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금융위원회로부터 합병 인가를 받으면 합병절차는 완료된다.

얼핏 양행의 통합절차는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날의 통합선언이 외환은행 노조와 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첨예하게 갈리던 양측의 평행선이 더 멀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이들 은행이 조기 통합했을 경우, 금융자산 규모나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면 노조와의 합의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금융도 나름의 입장이 있다. 노조의 대응만을 기다리다가 통합시기를 놓치면 영업환경 불안정성으로 조직내 혼란만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금융은 또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양측의 줄다리기는 언제까지 진행될까. '합병작업 이라는 카드와 '노사 협의'라는 두 카드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선 이제 서로의 양보의 결단이 필요하다.

검찰이 의장실(심사가 예정된 비리혐의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법에 갇힌 국회 '돌파구' 없나

민생법안 처리 하세월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유족들이 거부하면서 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야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최대한 양보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세 번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가운데 여야 간 협상안을 준수할 것과 민생경제 법안만이라도 우선 분리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경제 성장의 엔진이 꺼져 가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민생경제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 주도록 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8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해 22일부터 회기가 시작되지만 세월호 국정조사, 올해부터 처음 도입될 예정인 분리 국감, 단원고 학생 특례 입학 관련법 등 시급한 현안과 주요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정기자

군 수뇌부 오늘 사법제도 개선 문제 논의

● 군 수뇌부가 22일 군 사법제도 개선 문제를 공식 논의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에서 군은 관할관(지휘관) 확인조치권 폐지 문제와 일반 장교의 재판 참여 문제, 사단장이 군 검찰과 군 판사의 지휘·인사권을 계속 행사하는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토의한다.

강신명 후보자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기초 치안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21일 국회 안전행정위 인사청문회에서 "치안 책임자로서 일하게 된다면 국가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경찰이 직면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주 전 서울시 부시장 법정구속

● 김형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재개발 관련 사업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21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알선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93만4500원을 선고했다.

주석맞이 물가 점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을 찾아 추석맞이 물가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년간 의원 출판기념회 279건"

6차례 연 국회의원도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제19대 국회의원 300명의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출판기념회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2명의 의원이 총 279건의 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정당별로는 새정치민주연합(2014년 3월 이전 민주통합당) 107명, 새누리당(과거 한나라당 포함) 79명, 통합진보당 3명, 정의당은 3명의 의원이 기념회를 열었다. 이 가운데 4년 동안 행사를 2회 개최한 의원은 54명, 3회 개최한 의원은 13명이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같은 기간 6차례나 행사를 열었다.

시기별로는 2011년 11월~2012년 1월 35건, 2014년 1월~3월 36건, 국정감사(2013년 10월) 직전인 2013년 9월에 45건이 집중적으로 개최됐다.

이 단체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기 때문에 2012년 4월 총선, 2014년 6·4 지방선거 90일 이전과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기념회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세월호 단식 동참 시민들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에서 단식에 참여한 시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고·졸업생 여전히 '강세'

2014수능 분석해 보니…대도시·읍면 지역간 격차도 커져

수준별 시험으로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재학생보다는 졸업생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가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수능을 치른 응시자 60만6813명의 점적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사립학교가 국·수·영 전 영역에서 국·공립학교보다 표준점수 평균이 높았다.

사립학교와 국·공립 간 점수 차이는 ▲국어A 4.2점, 국어B 4.4점 ▲수학A 4.8점, 수학B 5.5점 ▲영어A 2.8점, 영어B 5.2점 등으로 어려운 B형에서 격차가 더 컸다. 1·2등급의 비율 역시 세 영역 모두에서 사립학교가 높았고, 반대로 하위 등급인 8·9등급의 비율은 사립학교가 낮았다.

졸업생의 강세도 여전했다. 졸업생과 재학생 간 점수 차이는 ▲국어A 5.4점, 국어B 9.9점 ▲수학A 11.2점, 수학B 8.1점 ▲영어A 5.7점, 영어B 9.3점이었다.

대도시와 읍면 지역간 격차는 ▲국어A 5.6점, 국어B 5.2점 ▲수학A 4.2점, 수학B 11.1점 ▲영어A 6.3점, 영어B 9.3점으로 수학, 영어 영역의 어려운 B형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

모든 영역에서 1·2등급 비율이 상위 30위에 드는 곳은 서울 강남구·서초구, 대구 수성구, 경기 과천시, 충북 청원군 등 5개 지역으로, 전 영역 표준점수 평균 상위 30위 지역이기도 하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현재현 동양회장 징역 15년 구형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

사기성 기업어음(CP)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21일 열린 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회사결정권을 가진 회장으로 회사가 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들에게 회사의 손해를 떠넘겼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동양그룹이 증권사를 보유한 점을 이용해 계열사의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부적격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팔았다"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상품 설명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투자 정보에 가장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 회사채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다혜기자 ydh@

나빌레라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14 전국대학생 마당놀이축제'에서 사물놀이와 전통복춤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와 사는 서울 노인 47% "오히려 우리가 부양한다"

자녀와 함께 사는 서울시내 60세 이상 중 47%가량이 부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1일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 60세 이상 중 45.2%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54.8%는 따로 살고 있다고 답했다.

자녀와 함께 사는 60세 이상 중 39.7%는 동거 이유로 '경제적·건강상 이유로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라고 답했다. 손자녀 양육과 자녀 가사지원을 위해서라고 답한 6.8%까지 포함하면 46.5%가 자녀 부양을 위해 동거했다.

수입·건강상 문제로 부모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동거한다는 답은 39.6%, 모두의 독립생활이 가능하지만 같이 살고 싶어서라는 답은 16.5%로 나타났다.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가 35.3%로 가장 많았고, '독립생활이 가능해서'(34%), '자녀에게 부담될까 봐'(23%)가 뒤를 이었다.

/김민준기자 mjkim@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민간보다 8배 어려워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민간 어린이집보다 8배나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21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702개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22만800여명이고, 3만6000여개 민간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23만5600여명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쟁률이 민간어린이집보다 8배 정도 높았다.

전국 4만2830개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는 인원은 46만3000여명에 달했다. 지역별로 서울 지역 대기자가 22만2000여명, 경기 지역 대기자가 10만2000여명으로 서울·경기의 입소 대기자가 전국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의 70%에 달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비용 고효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다혜기자

관제소홀 진도VTS 해경들 "잘못 있지만 형법상 무죄"

선박 관제를 소홀히 해 세월호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대부분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죄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은 21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김모(45)씨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5명 구속 기소)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야간 근무 당시 (두 명이) 구역을 나누지 않고 한 명이 도맡아 관제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법 근무를 묵인·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른 관제사의 변호인들도 "야간에 변칙적으로 관제를 수행한 사이 (내부)징계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무유기가 되는지 판단해 달라" "과거 군부대 당직사관이 당직실을 떠나 숙소에서 잔 경우에도 직무의 방임 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다"며 법리적 무죄를 주장했다.

관제사들은 3월 15일부터 세월호 사고가 난 4월 16일까지 2인 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한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다혜기자 ydh@

졸업생들의 셀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에서 졸업생들이 셀카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편의점 638곳 '여성안심지킴이 집'

24시간 편의점 '여성안심지킴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21일 신청 편의점이 638곳으로 늘었고 긴급지원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사례를 보면 주로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1시에 20·30대 여성이 취객이나 낯선 남성이 쫓아오는 것 같은 심리적 불안을 느껴 지하철역 주변, 유흥가,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네에서 가정폭력으로 급히 집을 나온 여성이 대피처로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찾은 사례도 있었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은 폐쇄회로(CCTV)가 구축돼 있고 경찰과의 '112 핫라인 신고 시스템'을 갖춘 게 특징이다. /김민준기자

태안 앞바다의 가을꽃게 21일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 수협 위판장에서 어민들이 갓 잡아올린 가을꽃게를 선별하고 있다. /태안군 제공

"'곽노현 특채교사' 임용취소 정당"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했던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 이모씨가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한 교사를 그 후 교육청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채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씨를 특채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임용 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교사로 근무하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는 데 반대해 2010년 사직한 뒤 곽 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다 2012년 2월 서울시 중등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됐다.

/윤다혜기자

"수령액 낮추고 퇴직금 보충"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시…총액 별차이 없어

공무원연금의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줄이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분을 보전하는 개편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선기획단은 21일 공무원연금의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방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4%를 33년간 부으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를 매달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40년간 부담하면 전생애 평균소득의 40%를 준다. 이를 환산하면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7배를 평생에 걸쳐 받게 되고 공무원연금은 약 2.3배를 받게 된다.

기획단이 제시한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20% 깎아 수익비(부담액 대비 수령액의 비율)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고려, 민간 퇴직금의 절반 아래인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묶어 제시했다.

개혁안은 국회 통과 이전 퇴직자의 연금은 깎지 않고, 그때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수령액 계산식이 적용된다.

기획단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요구가 높고 박근혜 대통령의 언조 약속한 사항이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만 공무원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보전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현실적"이라며 "연금과 퇴직수당을 합쳐 전체적으로 수령액에 큰 차이가 없다면 공무원 집단에 수용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9일 열린 당·정·청협의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되 퇴직수당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깎은 연금을 퇴직수당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연금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정안정 효과도 미흡해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도로 곳곳 물난리 폭우가 내린 21일 경북 경주시 화자동 도심 도로 곳곳에 물이 고여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봉서원 터 파니 불교유물 '우르르'

국보·보물급 77점 발굴

서울 도봉구 도봉서원이 있던 곳에서 고려시대 각종 불교의식이나 공양에 사용한 금강령 금강저(金剛杵)와 등 66건 77점에 달하는 국보 혹은 보물급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문화재청과 발굴조사단인 서울문화유산연구원은 2012년 도봉서원터 발굴조사 결과 수습한 이들 불교용구 관련 유물 일체를 21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공개했다.

연구원은 서울특별시기념물 28호인 도봉서원과 각석군 복원정비 계획에 따라 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5~9월 본격 발굴조사를 벌인 결과 도봉서원이 조선 초기까지 존재한 사찰이 확인되는 영국사라는 사찰터에 건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 건물터 아래에서는 영국사를 새울 당시에 부처를 공양하고자 묻은 것으로 보이는 불교 용구를 넣은 청동솥이 발견됐다.

조사단은 이들 유물에 도봉사 란 글자가 새겨진 점을 볼 때 고려시대 존재한 현근 도봉사라는 사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다혜기자 ydh@

전국 곳곳 호우특보 피해 속출

경북 영천 둑 붕괴 대피령…"오늘까지 계속 대비해야"

21일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려 저수지 둑이 붕괴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오전 서울을 비롯해 과천 수원 안산 성남시 등 경기도와 충남, 강원 등 중부지역 대부분에 호우경보 및 주의보가 발령됐다.

경북 지역은 지난 1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 20곳과 하천 둑 3곳, 저수지 1곳 등 33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북 영천시 괴연동에서는 21일 오전 9시께 괴연저수지의 둑 10m가 무너지면서 인근 3개 마을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당수의 농경지가 침수됐다.

대구에서도 이날 오전 도로가 침수되고 밀려든 토사에 길이 막혀 도로 9곳의 교통이 통제됐다. 경기와 강원 영서지역 곳곳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 역시 전날 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청계천 전 구간에서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했다. 탄천에는 오전 10시 50분을 기해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탄천 주차장에 있던 차량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됐다.

기상청은 "이번 비는 22일 밤까지 곳에 따라 120㎜ 넘게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는 저지대 침수와 축대 붕괴 등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다혜기자 ydh@

오늘 인재육성 멘토링 콘서트

한국장학재단은 22일 일산 킨텍스에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끄는 배움과 나눔의 연재'를 주제로 '2014 차세대 인재육성 멘토링 리더십 콘서트'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300여명의 기업 CEO 등 사회 각 분야 리더들과 2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석한다. 리더십 특강 18개와 맞춤형 역량개발강좌 등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 성균관대 신영복 교수가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맡다. 철학자 강신주, 개그우먼 박지선, 다음소프트 부사장 송길영, 김진만 PD, 안랩코리아 이희성 대표, 코스모폴리탄 에디터 곽정은, 만화가 강풀, 가수 션, LG전자 이정환 부사장 등도 강사로 나선다.

차세대 인재육성 멘토링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대학생 인재들에게 전수하는 국가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이다.

사무실 마당서 약 제조 강남 유명 한의사 덜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한약을 불법 조제하거나 건강식품의 효과를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한의사 김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의 한 유명 한의원 원장인 김씨는 한의원과 별도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한약을 조제하도록 한 뒤 한의원 환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이 업체에서 만든 발효 도라지환이나 도라지 유산균 등 건강식품 2억3000만원어치를 아토피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과장 광고해 판매하기도 했다.

한약 조제를 위해선 위생 등의 문제 때문에 담전실과 같은 조제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하지만 이들은 사무실 앞마당에서 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준기자

metroglobal

metro HongKong

metro Brazil

Três homens são por roubo da San

삼성 65억원 상당 도난제품 일부 찾아

삼성전자 브라질 법인의 65억 원 상당의 제품을 도난 당한 뒤 한 달여 만에 사건의 첫 실마리를 풀었다. 파라과이의 시우다드 델 에스테에서 장물을 넘겨 받은 업자가 최근 체포된 것. 140만 헤알(6억 3000만 원) 상당의 도난 제품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의 가게에서 발견됐으며 적발된 나머지 4개 업체의 창고에서는 주로 스마트폰이 발견됐다. 그러나 도난 제품의 일부만 파라과이로 향했을 뿐 나머지 90%와 범 일당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metro France

Saône : un poids lourd se se avec 200 cochons à bord

돼지 200마리 실은 트럭 전복

프랑스의 한 고속도로에서 돼지 200마리를 싣고 가던 트럭이 뒤집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총 세 톤에 달하는 이 트럭은 사거리를 지나던 중 다른 트럭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핸들을 꺾던 중 미끄러졌다. 헌병에 따르면 돼지 50마리는 도로 오른쪽 들판으로 피했지만 나머지 150마리는 사고 후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당시 차를 몰았던 돼지 주인은 들판으로 도망가는 돼지들을 잡기 위해 사고 현장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metro Russia

Башенка стала таксофоном

버려진 낡은 옥탑 공중전화 박스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바실리 섬의 옥탑이 최근 '공중전화 박스'로 변신, 눈길을 끌고 있다.

디자이너 알렉산드르 구바노프는 "친구들과 바실리 섬을 걷다 우연히 버려진 옥탑을 보게 됐다"며 "옥탑을 보자 곧바로 전화박스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아무도 몰래 그래피티 작업을 했다"며 "하루 아침에 빨간색 전화박스로 변모한 옥탑의 모습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개성만점 건물에 대한 시민 반응을 전했다.

구바노프는 낮에는 엔지니어로 일하고 밤에는 그라피티를 그린다. 그러나 구바노프가 그린 공중전화 박스는 시 소유의 건물이다. 시민은 반기는 모습이지만 그라피티 작업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뤄져 다소 논란이 되고 있다.

구바노프는 이에 대해 "내가 그린 그라피티가 시의 외관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풍스런 주변 건물과도 꽤 잘 어울린다"며 당국의 이해를 구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공중전화 박스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다"며 "특히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인기"라고 덧붙였다.

한 지역 관계자는 "현재 옥탑은 출입이 금지된 상태지만 아름답고 재미있는 옥탑을 철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랫동안 버려진 옥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출입을 금지한 것 뿐"이라며 "옥탑은 도시의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안나 투르찬코바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키 146cm에 몸무게 150kg

14세 '식탐 소년' 다이어트 백전백패…"살 빼서 학교 가고 싶어요"

중국 강서성에 살고 있는 14세 소년 쉬저우레이(徐?磊)는 146cm의 키에 체중이 150kg이다. 성인 평균의 두 배나 되는 몸무게에 허리둘레는 149cm로 키보다도 크다. 그의 꿈은 체중 조절에 성공해서 학교로 돌아가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쉬저우레이는 다이어트를 위해 아버지와 함께 전국 각지의 병원을 돌아다녔다. 체중감량센터에서 지료도 받아보고 무술 학교에서 체력 단련을 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매번 식탐 때문에 '백전백패'로 끝나버렸고 현재는 학업을 중단하고 집에 있다.

쉬저우레이는 식사 시간과 상관없이 항상 배고픔을 호소한다. 아버지가 먹지 못하게 하면 습관적으로 화를 낸다.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가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 바닥을 뒹굴면서 떼를 부렸고 자산의 코를 때려 피가 난 적도 있었다. 한번은 사탕을 몰래 먹다가 아버지한테 걸려서 매를 맞자 집을 나가버렸다.

그의 아버지는 "4kg으로 태어난 아들은 3세부터 갑자기 몸무게가 붙기 시작하더니 6세에 60kg을 넘었고 매년 약 10kg씩 몸무게가 늘었다"고 말했다.

얼마 전 아버지는 인터넷에서 유사한 병을 치료한 병원을 발견, 아들을 데리고 광저우로 갔다. 쉬저우레이는 지난달 3일 이 병원에 입원해서 현재 약물복용과 식이조절을 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담당 의사는 아이가 자주 말을 안 들어서 강압적으로 해야 할 때가 많다고 했다. 병실에서 몇 십 미터 거리에 있는 초음파실에 가자고 하자 걷기 싫다고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쳐서 결국 휠체어를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의사는 "쉬저우레이는 선천적으로 살이 찌기 쉬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 몸무게가 늘었다"며 "의료 규정에 따라 16세 미만 환자에게는 관련 수술을 할 수 없는데 16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검사를 더 진행해보고 치료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쉬저우레이의 체질량지수(BMI)는 정상 성인 남성의 3배이고 빨라도 성인의 심탄천을 크게 웃돌아 생명을 위협할 정도다. 그에게 다이어트는 멋진 몸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정리=조선미 기자

market index <21일>

코스피 2044.21 (-26.57)
코스닥 582.52 (+0.59)
금리 2.58 (+0.01)
환율 1022.50 (+1.00)

서울 국제유아교육전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2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 & 제10회 서울국제어린이 유아용품전'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교육완구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진퇴양난 재테크족, 해법 찾아라

저금리속 변동성 커져 공격투자 어려워
상장지수펀드·상장지수증권 등 관심을

Issue&View
변동성시대 해법은?

/김문호기자 kim@metroseoul.co.kr

월스트리트의 현인 이자 가치투자자의 대가로 불리는 존 템플턴은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라는 투자전략 명언을 남겼다.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은 물론 증권업계의 금융상품 금리가 일제히 2% 안팎으로 주저앉으면서 진퇴양난에 놓인 재테크족에게 위안이 될 만한 조언이다.

시장에는 투자를 노리는 돈들이 쌓이고 있지만 마땅히 눈길을 끌 만한 금융상품이 많지 않다. 펀드시장에서도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상반기 공모형펀드 계좌 수가 6년새 반토막이 났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조기인상 가능성을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 조심스러운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존 템플턴의 역발상 가치투자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수익원 발굴에 골몰하는 시장에서는 저금리·저성장을 뚫고 새로운 수익을 올릴 만한 금융 신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ETF 국내 넘어 해외로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일반투자자들이 매매할 만한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먼저 매년 40%씩 크게 성장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먹거리가 확대됐다.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국내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넘어 일본과 중국 등 해외 지역에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ETF가 속속 등장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16일 KB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국내 처음으로 해외 레버리지 ETF로 일본 토픽스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을 내놨다.

이어 한화자산운용은 중국 H주에 레버리지 투자하는 ETF를 오는 25일 상장한다.

해외 레버리지 ETF 상품이 일본을 넘어 중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중국 상하이거래소와 홍콩거래소가 연계되는 후강퉁 제도가 연내 시행되면 이 ETF는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LS-ETF 장점 섞은 ETN 출시

연내 국내 증시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지수증권(ETN)도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좇는다는 점에서 ETF와 비슷하지만 운용주체가 ETF와 다르다.

자산운용사가 ETF를 운용하는 것과 달리 ETN은 증권사가 운용을 맡는다.

또 ETF가 운용상 제약으로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대상에 제약이 있는 반면 ETN은 그렇지 않아 운용이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만기에 기초지수 수익률에 연동한 수익을 지급받는 점은 주가연계증권(ELS)과 유사하다.

차이점이라면 ELS보다 상품 구조가 단순하고 만기 이전에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또 거래 방식이 ETF처럼 증시 상장으로 이뤄지므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ETN은 ETF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초자산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투자기회가 다양해질 전망"이라며 "증권사가 유동성공급(LP)이 가능한 상품 위주로 기획할 것이므로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향후 ETF 못지 않게 ETN의 경쟁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직장녀 56% 성희롱 경험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화 됐지만 직장내 피해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직장인은 절반 이상이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311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중 성희롱·성추행 당한 경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27.3%가 '있다'를 선택했다.

특히 여성(56.4%)이 남성(8.8%)보다 6배 이상 많았다.

피해를 입은 유형으로는 '언어적 성희롱'(64.3%), '신체적 성희롱'(25.1%), '시각적 성희롱'(6.7%)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음담패설, 성적인 농담'(61.5%,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외모, 몸매 비하 발언'(47.5%), '포옹, 안마 등 신체접촉 강요'(39.4%), '노골적인 시선'(29.6%), '술 따르기 강요'(25.1%), '성적 사생활에 등 질문'(12.6%), '야한동영상 보여줌'(8.7%) 등이 있었다.

가해자는 '상사'(72.3%,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장소는 주로 '사무실'(61.5%, 복수응답)과 '회식 등 술자리'(56.1%)였다.

성희롱·성추행을 당했을 때 대응한 방법으로 '그냥 참고 넘어갔다'가 60.3%(복수응답)에 달했다. 이유로는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63.4%, 복수응답),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 같아서'(44.4%),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43.1%) 등을 많이 거론했다. /이국명기자 kmi.ne@

'추석 아동 한복 준비하세요' 이마트가 추석을 앞두고 의류시험연구원의 검사를 통과한 아동 한복을 3만9000원부터 12만9000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판매한다. /연합뉴스

삼성, 평판TV 휩쓸다

삼성전자가 전세계 평판TV 시장에서 역대 상반기 점유율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TV사업 부문에서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으로 평판TV 시장점유율 34분기 연속 1위 기록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삼성전자는 전세계 평판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31.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역대 상반기 점유율 중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삼성전자의 상반기 전세계 UHD TV 매출 점유율도 36.6%로 1위였으나 2분기 UHD TV 점유율은 1분기 점유율 21.6%의 2배인 43.3%를 기록했다. 1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부문에서는 50%가 넘는 역대 최고 점유율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이 수치를 커브드 UHD TV와 60형 이상 초대형 TV 등의 프리미엄 제품 약진, 중국 시장 선전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중국 UHD TV 시장에서 2분기 32.1%, 상반기 22.2%의 점유율로 매서운 추격을 펼치던 중국 업체들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장윤희기자 ccc@

삼성전자가 전세계 평판TV 시장에서 역대 상반기 점유율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임환수 국세청장 "간부부터 청렴해야"

임환수(사진) 국세청장이 21일 "간부들은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솔선수범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취임식에서 "국세청의 위기는 항상 고위직으로부터 왔다"면서 "저부터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만남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는 비정상적 탈세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정상화해야 한다"며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성실 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대기업, 대재산가 등 사회 지도층의 탈세와 역외탈세 등 재산 국외도피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일부 편향된 편의적 과세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불필요한 세정 간섭을 없애고,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 운영 방침을 밝혔다. /김민준기자 mkjm@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6 3
독자센터 02)721-9861
2005년 12월 31일 정간물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98

생활속 콜라의 숨은 용도는~

전순이 주부 경제학

갈증이 날 때면 생각나는 시원한 콜라 한 잔. 콜라 특유의 달콤한 향과 톡 쏘는 탄산은 더위는 물론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 넣어준다. 오랫동안 사랑 받아 온 콜라가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콜라의 숨은 매력을 알아보자.

우선 콜라는 녹 제거에 효과적이다. 못이나 쇠부품 등이 녹슬었을 때 콜라에 담가두면 녹이 깨끗하게 지워진다. 하룻밤 콜라에 담가놓은 뒤 다음날 닦아내면 끝. 도금된 제품은 천에 콜라를 묻혀서 원을 그리듯 닦아내면 된다. 콜라는 산성도가 높아 녹 성분인 산화철을 녹여준다.

얼룩과 찌든 때도 손쉽게 없앨 수 있다. 얼룩진 부분을 콜라에 넣은 뒤 잠시 담가뒀다가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세탁하면 된다. 기름 찌든 때도 사라지고, 냄새 제거도 가능하다. 다만 너무 오래두면 콜라색이 옷에 물들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냄비와 프라이팬의 그을음도 간단하게 없앨 수 있다. 타버린 부분이 안 보일 정도로 콜라를 넣고, 약한 불에 끈적거릴 때까지 끓인 뒤 식혀서 닦아내면 된다.

유리창의 얼룩이나 물때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집 창문에 붙은 얼룩에 콜라를 뿌리고 몇 분 기다린 후 얼룩을 긁어내면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다.

욕실 창문이나 거울에 부착된 물때 제거에도 좋다. 다만 콜라에 포함된 당분이 잔류물로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콜라도 완벽하게 닦아준다.

콜라는 벌레에 물렸을 때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모기나 벌에 쏘였을 때 치료제가 없다면 응급처치로 콜라를 발라보자. 기오리에 쏘였을 때의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

/정인지기자 inje@

7월 신설법인 8천개 돌파… 역대 최다

지난달 신설된 법인수가 8000개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신설법인은 8129개로 전달(7133개) 보다 996개 증가했다. 이는 지난 1998년 1월 통계편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전 최고치는 지난 4월 7226개였다.

한은 관계자는 "6월 영업일 수는 19일이었지만, 7월에는 23일로 증가했다"면서 "여기에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창업과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등도 한 몫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도업체도 늘었다. 7월 중 부도가 난 업체 수는 33개로 전달 보다 16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종이 8개, 건설업이 1개, 농림어업·광업·전기가스수도 등 기타 업종이 7개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전달과 같았다.

지난달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 전)은 0.21%로 6월의 0.22%와 비슷했다. /김민지기자 min@

IBK기업은행 장학금 전달 권선주 IBK기업은행 은행장이 21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장학금을 수여했다. /IBK기업은행 제공

전·월세 거래 전년比 22.5%↑

수도권 중심 신규입주 물량 확대 원인

전국 주택 전·월세 계약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1일 국토교통부가에 따르면 7월 전국적으로 13만2095건의 전·월세 계약이 이뤄졌다. 전년 동월(10만7874건)과 비교해 22.5%, 전월(11만2205건)보다는 17.7%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입주 물량이 늘어난 데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단독·다가구의 확정일자 신청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전·월세계약이 9만2515건으로 전년보다 28.6% 늘었다. 이 중 서울이 4만7630건으로 38.7%, 강남3구가 7316건으로 14.0% 증가했다. 지방은 수도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만9580건이 계약됐다. 전년 동기에 견줘 10.2%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주택 유형별로도 아파트가 작년 대비 12.9% 늘어난 4만6516건 거래되는 사이 아파트 외 주택은 30.7%나 늘어난 7만5577건이 거래됐다. 아파트 외 주택의 증가율은 특히 수도권(38.1%)과 서울(49.4%)에서 높았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와 월세 모두 증가했지만 월세의 증가폭이 훨씬 가팔랐다. 전세는 작년 같은 달보다 18.5% 증가했고, 월세는 28.0% 늘었다. 이처럼 월세가 더 많이 늘어난 결과 7월 월세 계약 비중은 41.5%로 작년 7월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

전·월세 계약이 증가하며 전세 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6월 3억3000만원에 계약됐지만 7월에는 3억5000만원에 계약서를 적었다. 같은 기간 군포시 산본 세종아파트 58㎡는 1억80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으로 전세가격이 올랐다.

/서예진기자 syj0326@metroseoul.co.kr

한화손보, 아동 초청 문화체험 봉사활동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0일 세계 아동들을 초청해 경기도 연천군 전곡선사박물관을 관람하고, 선사 예술조각품을 만드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화손보 제공

카드사용 증가율 꺾였다

7월 49조6천억… 전년比 2.1%포인트↓

경제심리지수(ESI)가 1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침체 국면이 지속되면서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이 하락했다.

21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7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승인금액은 모두 49조61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은 전년동월의 7.2% 보다 2.1%포인트 떨어졌다.

여신협회는 "경기침체와 전세가격상승에 따른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 둔화와 내수 침체 국면 지속 등이 영향을 끼쳤다"며 "경제상황에 대한 민간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경제심리지수(ESI)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심리지수(E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심리지수(CSI)를 혼합한 지표로 100보다 낮으면 민간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7월 경제심리지수는 92를 기록했다.

카드 종류별로는 체크카드의 성장이 여전히 두드러졌다.

지난달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9조67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1.9% 증가하며 9개월 연속 20%대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총 39조79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물가상승률(1.6%)을 고려할 경우, 실질 성장률이 제로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평균결제금액은 4만5532원으로 카드결제금액 소액화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동월 보다 8.3%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유통관련업종과 레포츠관련업종 카드승인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9%, 14.9% 상승한 6조7300억원, 573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레포츠관련 업종은 평균보다 높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 등의 영향으로 승인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카드승인금액 증가율(5.1%)을 상회했다.

애완동물 관련업종 카드승인금액의 성장세도 가팔랐다.

이 업종의 지난달 카드승인금액은 8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억원(18.7%) 증가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1인가구와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애완동물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했다"며 "독파 카드상품 출시가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박미선기자 a.lwe0203@

카드사, 상반기 순익 1조원대 회복

전년 동기비 17.7% 증가…1조1529억 달성

올 상반기 전업계 신용카드사들의 순익이 1조원대를 기록하며 1년 만에 회복세를 나타냈다.

21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현대·국민·롯데·우리·BC·하나SK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올 상반기 순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7% 증가한 1조 1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카드사 순익이 경기침체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급감한 9797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나마 안정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여기에는 체크카드 사용증가 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경기불황과 정부의 체크카드 권장 등에 힘입어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25% 이상 급증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2011년 25%에서 2012년 30%로 인상한데 이어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40%로 재인상하기도 했다.

이 결과 올 상반기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43조원을 넘어서며 승인금액 증가율도 9개월 연속 20% 대를 유지했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삼성카드의 올 상반기 순익은 2999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00.3%나 증가했다.

이는 삼성화재와 제일모직 지분 매각에 따른 이익 160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4.8% 가량 늘어난 것으로 삼성카드는 보고 있다.

같은 기간 현대카드의 순익은 금융시장 보조와 챕터2 카드상품 단순화 전략 효과 등으로 전년보다 64.5% 증가한 137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카드는 올 상반기 3177억원의 순익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 감소했다. 다만 전년도 비자카드 지분 매각 이익 등 일회성 요인에 따른 이익 417억원을 제외하면 이 기간의 순익은 1.1%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올 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를 겪었던 국민카드의 순익은 2036억원에서 1874억원으로 7.0% 줄었고, 롯데카드는 843억원에서 1003억원으로 13.6% 올랐다.

국민카드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국민행복기금 매각이익 235억원 등 일회성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올 1월 정보유출 사태에 휘말렸던 두 카드사의 상반기 실적이 악화되지 않은 것은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비용 등 지출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BC카드는 740억원으로 지난해의 739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고, 지난해 4월 출범한 우리카드는 올 상반기 순익 346억원을 보였다.

/박지원기자 [email unclear]@metroseoul.co.kr

박상은 "직거래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들이 직거래 농산물로 만든 저녁 반찬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21일 경기도 고양시 원당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들이 직거래 농산물로 만든 저녁 반찬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변리사, 전문직 소득 1위

변호사 4억1천만원·회계사 2억8천만원 順

변리사가 지난해 소득이 가장 많았던 전문직으로 꼽혔다. 1인당 평균 연수입이 5억6060만원으로 9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인당 평균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라고 밝혔다. 변호사(4억900만원)와 관세사(2억9660만원)가 뒤를 이었다. 또 회계사(2억8500만원)와 세무사(2억5400만원), 법무사(1억4700만원), 건축사(1억1900만원), 감평사(6900만원) 순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에 바탕을 두고 추산한 것이다.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으로 꼽히는 의사는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고 있어 통계에서 제외됐다.

변리사는 전산통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9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변호사와 관세사도 각각 2위와 3위를 9년간 한번도 놓치지 않았다.

9년 평균으로 보면 변리사 연수입은 5억8700만원이었고, 변호사 3억8800만원, 관세사 3억1900만원, 회계사 2억6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9년간 1인당 평균 수입 대비 평균부가가치세액 비율은 변리사(5.20%)와 변호사(6.76%)가 가장 낮았다. 돈은 많이 벌지만 부가세는 적게내는 '역전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오히려 9년 평균 1인당 연수입이 9400만원으로 고소득 전문직 중에는 낮은 편인 감평사와 수입 대비 부가세액 비율이 9.24%로 가장 높았다.

이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경우 외국법인과 거래 등 부가세 영(0)세율을 적용받는 외화획득 사업소득 등이 많아 부가세액 납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명재 의원은 "영세율 제도가 자칫 조세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변리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외화소득에 대해 과도한 조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세무당국은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세원 확충을 위해 탈세 적발과 면세제도 보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군기자 [byline unclear]

신한카드, 남산서 '코드9 콘서트' 연다

토요일 저녁 6시, 서울 남산은 기타 소리에 휩싸인다. 인디밴드 페스티벌인 '신한카드 Code 9 콘서트'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부터 매주 금·토요일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펼쳐졌던 콘서트는 남산 N서울타워라는 공간에서 별도 입장권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오픈 스탠딩 형식의 축제로 이뤄졌다.

하루에 3팀씩 모두 24번의 공연으로 꾸려진 무대는 '장기하와 얼굴들'과 '10cm', '델리 스파이스', '킹스턴 루디스카' 등 인지도가 있는 밴드와 팀들의 공연도 있었지만 홍대나 락밴드 공연장 위주로 공연하는 팀들도 다수였다.

이번 콘서트가 문화 마케팅 프로젝트 'GREAT 시리즈'의 첫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만큼 다분히 자유로운 실험정신으로 새로운 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공연 또한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돼 기존 신한카드가 진행해 온 공연 마케팅 방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콘서트 홍보방식 역시 기존 매스미디어 위주의 방식을 포기하고, 자사SNS와 인디밴드 매니아들의 입소문에만 의존했다.

최근 새롭게 선보인 빅데이터 상품체계 '코드나인(Code 9)'의 이미지를 문화의 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기존의 틀을 벗어버린 셈이다.

이 때문에 콘서트를 기획한 신한카드 브랜드기획팀 실무자들도 '과연 이게 잘 될까'라는 일말의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다고 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20대 초중반의 젊고 트렌디한 타겟을 겨냥해 신한카드의 브랜드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방향성 외에는 기존 신한카드 방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았다"며 "다분히 실험적인데다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일단 인디밴드 활성화에 투자한다는 어른의 직감에 의존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의 발로로 기획한 새로운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결과는 대성공. 콘서트는 공연 회수가 거듭될수록 반향을 일으켜 지난 16일 공연에만 3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는 인디밴드의 자유로운 도전정신에 열광하는 젊고 트렌디한 세대의 열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이를 통해 젊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윤기자

오감만족, 도심 IT체험공간 '인기'

삼성, 디지털프라자 홍대점 리모델링…SKT, '티움 모바일' 오픈

IT를 오감으로 만끽하는 도심속 체험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과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은 자연스럽게 서비스 홍보 효과를 거둔다.

삼성전자는 21일 디지털프라자 홍대점을 IT 체험 매장으로 전면 개조했다. 20~30대 유동인구가 밀집한 홍대 지역 상권에 맞게 매장 구성과 인테리어를 개편한 것이다.

매장은 휴식 여행 운동 취미생활 등 네 가지 테마로 꾸며졌으며 무료 제품 체험 공간과 커피 전문점도 입점했다. 방문객들은 갤럭시 시리즈뿐 아니라 로봇 청소기, 냉장고 등 각종 가전제품도 시연해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디지털프라자 홍대점 개편을 기념해 24일까지 커피 음료권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들이 새로운 문화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체험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도 IT서비스와 소비자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SK텔레콤은 이동형 체험관 '티움 모바일'을 20일 개관했다. 이 체험관은 23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며 이후 전국을 순회한다. 각각의 전시관은 투명 에어돔에 담아 날씨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관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윤용철 SK텔레콤 PR실장은 "싹을 틔운다는 의미를 가진 티움 명칭처럼 이곳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의 마음 속에 꿈과 희망의 싹이 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T는 광화문 올레스퀘어에 KT 서비스 상품과 최신 디바이스를 진열해 놓고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기기를 이용하도록 마련했다. 올레스퀘어는 정기적으로 문화 공연도 개최한다.

LG유플러스는 전국 70곳 이마트 매장에서 LG유플러스 홈보이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

홈보이는 전화와 오디오, TV, 전자책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8.3인치 태블릿PC형 가전이다. 이마트 문화센터를 방문하거나 자녀의 문화센터 강좌를 기다리는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홈보이를 이용하게 마련한 것이다. 홈보이에는 이마트 문화센터 강좌와 이벤트 소식도 소개된다. 류창수 LG유플러스 홈솔루션사업담당은 "이마트 문화센터는 편리하게 강좌를 소개하면서 고객 대기시간에 홈보이를 제공하고, LG유플러스는 고객에게 홈보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IT 문화 체험 공간으로 변신한 삼성 디지털프라자 홍대점 내부의 모습. 젊은 인구가 밀집한 홍대 상권에 맞게 리모델링했다. /삼성전자 제공

/양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SK·포스코·현대차, 내부거래 多

3사 모두 20% 넘어 47개 기업집단 평균 12%

지난해 SK·포스코·현대자동차 등 3개 그룹사의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민간 기업집단(대기업집단) 47개의 지난해 계열사(1351개)간 상품·용역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대기업집단 4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6%, 금액은 181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총수가 있는 집단(39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6%, 없는 집단(8개)은 11.46%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SK(26.01%), 포스코(21.84%), 현대자동차(21.64%), CJ(15.27%), 한솔(15.19%) 순이다.

금액상으로 SK(40조5000억원)가 가장 많고 현대자동차(35조2000억원), 삼성(26조7000억원), LG(16조4000억원), 포스코(15조6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5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34조5000억원으로 전체집단(47개)의 74.0%를 차지한다.

대기업집단 47개의 2013년 내부거래 금액은 2012년(185조3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줄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소폭 감소한 데 비해 매출액은 큰 폭으로 줄어들며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12.46%)은 2012년(12.3%)보다 0.16%포인트 상승했다.

2012년과 비교한 작년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난 폭이 컸던 곳은 SK(3.49%포인트), KT(1.76%포인트), 포스코(1.26%포인트) 등이다. 금액으로는 SK(5조3000억원), LG(1조2000억원), KT(5000억원)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한 기업은 부영(-11.42%포인트), KCC(-5.1%포인트), 한국타이어(-4.7%포인트) 순이다. 금액상으로는 삼성(-1조4000억원), 현대중공업(-1조원), GS(-6000억원) 등이 많이 줄었다. /유주영기자 boa@

이워홈 '세븐포인트 피자' 론칭 종합외식식품기업 아워홈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이탈리안 피자 브랜드 '세븐포인트 피자' 론칭 행사를 갖고 있다. /뉴시스

kt금호, 신차 장기렌터카 '밸류팩' 출시

종합 렌탈회사인 kt렌탈(대표 표현명)의 렌터카 브랜드인 kt금호렌터카는 최근 급성장하는 개인 신차장기렌터카 신규계약 고객(재계약 포함)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84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밸류팩'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의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지원하고 주유할인 및 호텔&스파 제휴할인 등 다양한 고객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비용은 부가세 포함 월 1만원이며 카드 발급일로부터 계약 만료시까지 매년 최대 84만원의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윤종진 IMC본부장은 "신차 장기렌터카를 선택한 고객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모아 밸류팩으로 출시했다"고 말했다. /김대균기자 kdk@

직장인 추가자금 'LIG 우량직장인 신용대출'

LIG손해보험이 21일 우량기업 임직원을 위한 중·저금리형 대출 상품 'LIG 우량직장인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LIG손해보험의 가입 고객이 아니더라도 우량기업체(상장사, 외감법인,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에 1년 이상 재직중인 4대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했더라도, 제2금융권에 신용대출이 없다면 연 6~10%(최고 16.1%)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방법은 기본적으로 원리금균등상환이지만, 신용등급이 우량할 경우에는 만기일시상환도 선택할 수 있다.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상환방법을 선택할 시 대출기간은 1년, 2년, 3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할 경우 대출기간은 1년이지만 신용등급을 유지하면 1년 단위로 매년 연장이 가능하다.

LIG손해보험 홈페이지(www.LIG.co.kr)에서 별도 로그인 없이 본인의 대출 가능 한도와 금리를 24시간 조회할 수 있다. 별도 창구 방문 없이 LIG손해보험 융자콜센터(1544-9130) 등을 통해 전화대출이 가능하다.

LIG손해보험 한현규 개인융자팀장은 "직장인의 부채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며 "평균 대출금리가 20%를 상회하는 제2금융권신용대출 시장에 실질적인 10% 내외의 중·저금리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김민우기자

통신+카드… 모바일 결제 뜬다

LG U+, 페이나우 플러스…SKT·KT, 부정사용 방지 서비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사도한 기술과 인문학의 영롱한 만남이 '아이폰 신화'를 탄생시켰다. 이후 융합이라는 말이 급부상하며 사회 전반이 융합을 원하게 됐다. 통신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업계는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금융·방송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통신과 금융과의 만남이 두드러지고 있다. 통신업계가 플랫폼 경쟁력을 강점으로 성장하는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3일 모바일에 최적화된 간편결제시스템인 '페이나우 플러스'를 공개했다. 결제사업자(PG)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를 통과한 '페이나우 플러스'는 기존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과 다르다.

최초 1회만 결제정보를 등록하면 그 다음부터는 결제정보를 주기하지 않아도 모바일과 PC에서 약 3초 만에 결제가 가능하다. 이르면 9월부터 공인인증서없이 30만원 이상 금액도 결제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도 모바일 결제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양사는 이를 위해 카드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NH농협카드와 손잡고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방지 시범서비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최근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조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령 고객이 사용 중인 NH농협카드가 해외에서 대면 거래 방식으로 결제됐을 때 이동사의 실시간 해외로밍 정보와 실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국가 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진위여부를 가려낸다.

3개월간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 후 12월부터 고객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NH농협카드와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카드사 전체로 서비스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승희기자 ssh816@metroseoul.co.kr

하겐다즈, 신제품 출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가 21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오픈한 쿼인스토어에서 망고&라즈베리 아이스크림 스페셜 디저트를 선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나우 플러스' /LG유플러스 제공

개인 휴대전화로 업무도 OK

SKT, 'T페르소나 프리미엄 서비스 개시

SK텔레콤은 21일 모바일 가상화 솔루션 기업인 레드벤드소프트웨어와 함께 개인이 소유한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BYOD 솔루션 'T페르소나 프리미엄' 서비스 및 전용단말기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T페르소나 프리미엄'은 운영체제(OS)를 구분해 개인영역과 업무영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솔루션이다. SK텔레콤은 하나의 폰(전용단말)으로 두 개의 이동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과 최고등급의 보안 수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SK텔레콤 고객센터·대리점, T월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비용은 월 정액 3300원이고 2개의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하고 싶은 고객은 월 6600원의 패키지를 이용하면 된다.

T페르소나 프리미엄 /SK텔레콤 제공

모바일 가상화란 2개 이상의 운영체제(OS)가 하나의 하드웨어 자원을 충돌없이 효율적으로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BYOD 솔루션은 개인 스마트폰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는 것에 주목한 개인영역 보장과 동시에 업무용 보안기능을 제공한다. /서승희기자

효성ITX, 나눔봉사단 출범

효성의 IT계열사인 효성ITX(대표 남경환)는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효성ITX 나눔봉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효성ITX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 꿈더하기 지원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외계층이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연 티켓을 제공하고, 지역전 정화활동과 같은 지역사회 후원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4일에는 꿈더하기지원센터에 소속된 장애 학생 20여명이 효성ITX가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두드리미'를 방문, 장애인 일터 체험을 통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그려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방문 이후 효성ITX 임직원 20여명과 함께 영등포구의 영화관을 찾아 애니메이션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를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다.

효성ITX의 남경환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으로 구성된 '효성ITX 나눔봉사단' 단원들이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4일 서울시 영등포구의 영화관을 찾아 '드래곤 길들이기'를 함께 관람했다. /효성ITX 제공

조현준 정보통신PG장(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의 필요한 재원으로 성장하고, 다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며 "효성ITX를 비롯해 계열사 및 협력사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태근기자 tech@

불법 보조금, 이통사 과징금 585억

SKT·LGU+, 이달 말부터 차례로 영업정지

휴대전화를 판매하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58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3~5월 45일씩의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다시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결과다. 또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이달말부터 9월초까지 차례로 1주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371억원, LG유플러스에 105억5000만원, KT에 10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26일부터 6월13일까지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6600원이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이다.

방통위는 또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린 1주일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각각 8월27일부터 9월2일, 8월30일부터 9월5일까지로 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신규모집 정지 기간은 7일로, 과징금은 76억1000만원으로 감액했다. /김태균기자

게임빌·컴투스, 글로벌 시장서 대박

피싱마스터' '워로드' 각국서 인기 '서머너즈 워' 하루 사용자 100만 돌파

'한지붕 두가족' 게임빌과 컴투스가 릴레이드 모바일게임으로 글로벌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게임빌의 주요 타이틀은 세계 각지에서 스테디셀러에 올랐고 컴투스의 킬러 타이틀 '서머너즈 워:천공의 아레나'는 하루 게임 이용자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21일 양사에 따르면 게임빌은 곳곳에서 히트작을 내놓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피싱마스터'가, 유럽·중동 지역에서는 '워로드 시리즈'가, 중·남미 지역에서는 '스피릿스톤즈'가 강세를 띠고 있다.

출시 2년2개월이 지난 낚시 소재의 소셜 네트워크 게임 '피싱마스터'는 현재 대만, 말레이시아의 구글 플레이 전체 게임 매출 톱30에 랭크돼 있다.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마카오 등지에서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스포츠 게임 매출 톱10을 제지하고 있다.

특히 이 게임은 1년 넘게 대만 구글 플레이 스포츠 게임 매출 톱5를 고수하고 있다.

두 돌을 앞둔 간판 전략 소셜 네트워크 게임 '몬스터 워로드'를 필두로 후속작 '삼국지워로드'와 '판타지 워로드' 등은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몬스터워로드'는 쿠웨이트 애플 앱스토어 전체 게임 매출 상위권과 함께 독일, 프랑스,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등을 포함한 12개 국가의 구글 플레이 어드벤처 게임 매출 톱5에 올라 있다.

이와 함께 판타지 풍 카드 배틀 게임과 퍼즐 RPG의 절묘한 묘미를 지닌 '스피릿스톤즈'는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게임빌은 이 같이 국가별 강세를 띈 인기 게임들이 뚜렷이 존재하는 가운데 최대 2년 넘도록 순항할 수 있는 요인으로 철저한 현지화와 안정된 서버를 꼽았다.

게임빌은 생명력이 짧은 모바일 게임에서 탈피해 전 세계 지역을 상대로 오랜 기간 플레이될 수 있는 스테디셀러 양산에 집중해 왔다. 최근 그 서비스 노하우를 비탕으로 '크리티카', '혼돈의 서막' 등 글로벌 신작 타이틀을 속속 내놓고 있다.

컴투스의 모바일 RPG '서머너즈 워'는 일일 게임 이용자수 100만명, 누적 다운로드 수 1300만 건을 최근 넘어섰다.

하루 100만명이 즐기는 '서머너즈 워'의 성공 비결은 ▲몬스터를 성장시키는 체계적인 육성과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적인 전투 등 탄탄한 콘텐츠 ▲RPG 특유의 재미와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머너즈 워' 일일사용자의 90%, 다운로드의 82%가 해외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의 경우 국가별로 누적 수치가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엠게임 '열혈강호2' 中 담금질

이용자 90% 테스트계정 활성화

글로벌 게임 포털 엠게임은 무협액션 MMORPG '열혈강호2'의 중국 내 알파 테스트가 안정적인 게임 환경 속에서 인기리에 실시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열혈강호2'의 알파 테스트는 오는 10월 중국에서 실시할 본격적인 테스트에 앞서 서버 부하 및 안정화를 점검하기 위한 사전 테스트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된다.

또 중국 이용자들과의 첫 대면인 만큼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게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10레벨 마다 새로운 기능 시스템을 배치하고 캐릭터 육성에 도움이 되는 패키지 아이템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열혈강호2'는 테스트 전부터 중국의 유명 게임 웹진인 pcgames 사이트의 온라인게임 기대 순위 3위, 티시 게임포털 내 PC 온라인게임 기대 혹은 인기 순위에서 10위 안쪽에 랭크되는 등 오픈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관심은 테스트에도 이어져 테스트 2일 차인 지난 20일까지 배포한 테스트 계정의 약 90%의 이용자가 게임 접속을 위한 계정 활성화를 시켰다.

실제 게임에 접속한 비율도 평일임에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계속 상승 중으로 테스트 후반인 주말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엠게임은 지난 1월 전작 '열혈강호 온라인'을 중국에서 성공리에 서비스 중인 17게임(구 CDC게임즈)과 '열혈강호2'에 대한 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10월부터 2차례의 비공개 테스트를 거쳐 12월 공개서비스와 동시에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상훈기자

롤드컵 예선 플레이오프 장소 확정

글로벌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의 개발·유통사인 라이엇 게임즈는 2014시즌 롤 월드 챔피언십 티켓 판매 일정과 조별예선, 8강, 4강이 진행될 경기 장소를 발표했다.

대만 타이베이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조별예선 티켓은 22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9월18일부터 21일까지 대만에서 진행되는 2개조 예선에 대한 티켓은 워키티켓(http://www.walkieticket.com/product.aspx?P1=08144511181)에서 구매할 수 있다.

조별예선 경기는 국제 스포츠 대회, 각종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 장소로 유명한 NTU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다.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치르는 조별예선은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다.

이 곳은 매년 650만 명이 방문하는 국제 전시장으로서 국제 행사가 열리기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조별예선 티켓은 시스틱(http://sistic.com.sg/events/league0914)에서 예매할 수 있다.

각 조 1, 2위를 차지한 8개팀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8강전을 치른다.

벡스코는 매년 롤 챔피언스 윈터 개막전이 열린 곳으로 e스포츠팬에게 친숙한 장소다.

4개팀이 격돌하는 준결승전은 10월 11일과 12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사진)에서 열린다.

소환사컵과 100만 달러의 우승 상금의 주인을 가리는 대망의 결승은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10월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며 티켓은 좌석 등급에 따라 4가지 가격대로 제공된다. /박상훈기자

아이언맨·토르·헐크를 '한팀으로'

'마블 퍼즐 퀘스트' 한글버전 출시로 아이언맨·토르·헐크·울버린 등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꿈같은 일이 가능해졌다.

D3퍼블리셔(D3PA)와 마블엔터테인먼트는 인기 게임 '마블 퍼즐 퀘스트(Marvel Puzzle Quest)'를 완전 한글화해 국내에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마블 퍼즐 퀘스트'는 퍼즐 퀘스트 시리즈 중 최초로 팀 기반의 게임 플레이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언맨·토르·헐크·울버린·호크아이 등 마블의 유명한 영웅 캐릭터들은 물론 '닥터둠', '매그니토', '주드' 등 슈퍼 악당도 등장한다. 슈퍼 히어로와 슈퍼 악당 가운데 3명의 캐릭터를 팀으로 구성해 쉴드의 물질 'ISO-8'을 획득하고 제어하기 위한 전투를 벌일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PC용 게임은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store.steampowered.com/?l=korean)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출범 한달 위드미 성적표는?

"뚜껑 열어보니 별것 없다 vs 내실에 힘쓸 단계"

신세계그룹의 편의점 위드미가 본격적인 가맹점주 유치에 나선지 한달여가 지났다. 가맹점수는 시작한 지난달 일 이후 20일까지 매장수는 149곳. 기존 137개 매장에서 12곳이 늘었을 뿐이다. 연말까지 1000여개로 가맹점을 늘리겠다는 것이 당초 목표였지만 이런 추세라면 달성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위드미는 기존 편의점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무 로열티(월 회비 방식 도입) ▲무 위약금 ▲무 24시간 운영 의무를 내세우며 '3무 정책'을 강조했다. 출범 당시만 해도 편의점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업계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별것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신세계 측은 '장기적인 안목'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현재 주력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매장수 증가나 매출이 아닌 내실 다지기"라고 말했다.

◆업계 "점주 이탈 조짐 없어"

신세계 위드미 출범 후 기존 업계와의 가맹점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그러나 기존 편의점 점주가 위드미로 '갈아탄' 사례는 찾기 힘들다.

편의점업계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점주 이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점주들의 반응이 오히려 시큰둥한 편"이라며 안심하는 눈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드미가 단순히 물건만 대주는 상품공급점 형태로 알려져 있다 보니 매출 성장 동력이 저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가맹점주 뿐 아니라 신규창업자에게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드미에 대한 업계의 전망도 긍정적이진 않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데다 미검증된 시스템에 대한 점주들의 낮은 신뢰도가 향후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초반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현재까지 점포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을 보면 향후에 폭발적인 반응이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신세계 "상담 신청 쇄도…당분간 내실 경영 주력"

이 같은 반응에 신세계 측은 "현재 상담 신청이 쇄도하고 있을 정도로 초반보다 관심이 부쩍 늘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난달 일부터 시작된 9번의 공개 사업 설명회에 3000여명이 찾았고 창업상담건수만 7000여건에 이른다. 신세계에 따르면 현재 30여명의 지역개발담당자들이 주요 도시에서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 당시 참여했던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참여자들 중 수백여명이 재상담을 요청해 각 지역에서 상담을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 위체 측 설명이다.

신세계 측은 향후 장기적으로 2~3년을 바라보고 시작한 사업인만큼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는 입장이다.

위드미 관계자는 "위약금을 대납하고 점주를 데려오는 기존 관행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며 "이사를 가더라도 살 집을 몇 개월 정도 알아보지 않나. 기존 점주들에게도 고려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품 공급점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독립형 편의점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매장 관리나 교육이나 재고 관리 등 전반적인 점포 관리를 해준다"며 "점주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추천가격제 시행, 밀어내기 관행 없애기 등 상생형 편의점 이란 차별적인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진화하는 믹싱 레시피

다양한 음료 맛 한 번에

음료업계의 믹싱 열풍이 뜨겁다. '믹싱 음료'는 두 가지 이상의 음료를 섞어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음료를 말한다. 최근의 믹싱 레시피는 갈수록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포도 식초음료에 맥주나 소주를 섞어 상큼한 청포도 칵테일을 만들어 내고 한 단계 진화한 막걸리 믹싱 레시피도 관심을 끈다. 이로 인해 제조업체들은 자사 제품의 다양한 맛을 섞어 만든 음료에 독특한 이름까지 붙이고 나섰다.

CJ제일제당의 쁘띠첼 미초 청포도는 100% 청포도 발효초로 만든 식초음료다. 청포도를 그대로 발효해 만들어 면역력 증진에 좋은 다양한 유기산과 비타민·미네랄 등이 풍부하다.

이 제품에 시원한 맥주나 소주를 섞어보자. 청포도 특유의 깔끔하고 상큼한 맛이 주류와 만나면 청포도의 맛과 향이 가득 담긴 '청포도 칵테일'(사진)로 변신한다. 쁘띠첼 미초 청포도 60㎖에 시원한 맥주 300㎖을 섞으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청포도 맥주로, 쁘띠첼 미초 20㎖에 소주 50㎖을 섞으면 깔끔한 청포도 소주가 완성된다.

쁘띠첼 미초 측에서는 이런 청포도 칵테일 믹싱 레시피를 적극 알리기 위해 8월부터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맥주나 소주 등의 주류에 간편하게 섞어 마실 수 있는 40㎖ 파우치를 판매 중이다.

배상면주가의 '느린마을 막걸리'와 한국야쿠르트의 '헛개나무 프로젝트 쿠퍼스'를 결합한 레시피도 있다. 이른바 '느막쿠주'라는 이름으로 최근 소비자들의 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막걸리는 아스파탐을 넣지 않고 쌀의 함량을 높여 막걸리 본연의 맛을 풍부하게 재현한 프리미엄 막걸리다. 헛개나무 프로젝트 쿠퍼스는 알코올성 간 손상에 좋은 헛개나무 추출물이 함유된 요구르트로 두 제품을 합친 느막쿠주는 특히 동산객이나 골퍼들 사이에서 손쉽게 마실 수 있는 믹싱 레시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방송 광고를 통해 주가를 올리고 있는 제품도 있다. 코카콜라사의 '환타'는 톡톡 튀는 탄산의 청량감과 함께 만드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 '환타 믹스(Mix)'를 전면에 내세워 홍보 중이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국가별 대표 '쌈 요리' 열전

건강에도 좋은 균형식인 쌈 요리는 재료에 따라 맛이 확연히 차이 나는 음식이다. 마치 세계 맛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국가별 대표 쌈 요리 3종을 소개한다. 자료 제공: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대한민국-구절판

분량: 2인분 / 난이도: 어려움 / 열량: 342㎉ / 조리시간: 60분

[재료] 쇠고기 우둔 120g, 표고버섯 5장, 석이버섯 15g, 오이 1개, 당근 1/2개, 죽순 150g, 계란 3개, 밀가루 1컵, 물 14큰술

[양념] 1)겨자소스: 겨자가루 2큰술, 물·식초 각 1큰술, 설탕 1/2큰술, 조간장 약간
2)쇠고기·버섯양념: 마늘 1작은술, 간장·설탕·참기름·대파 각 1/2큰술

1. 쇠고기와 표고버섯은 가늘게 채 썰어 각각 양념해 볶는다.
2. 오이는 4㎝ 길이로 가늘게 채 썰어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짠다.
3. 석이버섯과 당근, 삶은 죽순은 4㎝ 길이로 가늘게 채 썬다.
4. 오이·석이·당근·죽순은 각각 참기름·소금·후추가루로 양념해 볶는다.
5. 계란은 노른자와 흰자로 나누어 각각 지단을 부쳐 같은 길이로 채 썬다.
6. 밀가루 1컵에 소금간을 하고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묽게 풀어 체에 한번 거른 후 얇게 밀전병을 부친다.
7. 가운데에 밀전병을 담고 준비한 ①~⑤를 가지런히 둘러 담아 낸다.
8. 겨자소스 재료를 섞어 겨자소스를 만들어 곁들여 먹는다.

◆멕시코-퀘사딜라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544㎉ / 조리시간: 30분

[재료] 또띠아 2장, 모짜렐라치즈 200g, 청피망·홍피망·가지·호박 각 1/2개, 버터 50g

[양념] 카레가루·케첩 각 1큰술, 소금·후추·식용유 각 약간, 허브 1잎, 사워크림·칠리 각 3큰술

1. 청피망·홍피망·양파·가지·호박은 잘게 채 썬다.
2. 팬에 버터를 두르고 ①의 채소를 볶다가 소금·후춧가루로 간을 한 후 카레를 넣고 볶는다.
3. 깨끗한 팬에 또띠아를 살짝 앞뒤로 구운 후 이기에 반달형으로 모짜렐라치즈를 가지런히 바닥에 깔고 채소를 조금씩 넣고 다시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 반을 덮어준다. 앞뒤로 살짝 돌려가며 치즈가 녹는 것을 확인 후 꺼낸다.
4. 또띠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접시에 둥글게 담아 가운데에 사워크림·케첩·칠리소스를 올리고 허브로 장식한다.

◆터키-치킨케밥구이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399㎉ / 조리시간: 30분

[재료] 닭고기 다리살 400g, 양송이 1개, 대파·실파 각 1뿌리, 통깨 약간, 식용유 2큰술

[양념] 토마토케첩 1/4컵, 닭육수 3큰술, 다진 양파 1큰술, 생강즙·핫소스·식초 각 1작은술, 설탕 1큰술, 다진 파 약간, 다진 마늘 1작은술

1. 닭고기는 길쭉한 형태로 4등분해 소금·후춧가루를 뿌려준다.
2. 양송이는 반으로 자르고 굵은 대파는 크게 2등분하고 실파는 다져 놓는다.
3. 준비된 소스재료는 모두 한꺼번에 넣고 걸쭉하게 혼합한다.
4. 꼬치에 닭고기-양송이1/2-대파-닭고기 순으로 끼워 꼬치 2개를 만든다.
5. 두꺼운 팬을 달구어 식용유를 두르고 준비한 닭고기를 구워 낸다.
6. 노릇노릇 양쪽이 색이 나면 섞어놓은 소스를 부어 약한 불에 졸이면서 익힌다.
7. 익으면 접시에 담고 다진 실파와 통깨를 뿌린다.

귀여운 캐릭터로 소비자와 소통

유통업계, 브랜드 제고 체험 기회 제공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까지 캐릭터를 좋아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유통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전에도 패키지에 캐릭터를 삽입하는 등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지만 최근에는 좀 더 폭넓은 방법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데에 활용된다.

중국 맥주 칭타오(Tsingtao)는 국내 맥주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캐릭터 '타오'(사진 왼쪽)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콘셉트의 타오의 방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판다 타오 인형 300개를 제작해 9월까지 서울의 유명 관광지인 북촌 한옥마을, 남산N서울타워, 광화문 등에서 국내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서울 투어에 나선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복합쇼핑몰 등에도 타오가 등장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브랜드 111주년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소비자와 더 친근한 방법으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캐릭터 인형으로 제품력을 알리는 브랜드도 있다. 유니레버 도브는 피부 표면 구성 성분 중 하나인 단백질과 유사한 옥수수 단백질로 만들어진 제인 종이 인형으로 어려운 제품 기술도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인 인형을 각각 일반 비누와 도브에 올려 놓고 물로 적시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다. 실험에서는 일반 비누 위의 제인 인형이 녹아 내린 반면 도브바 위에서는 형태가 유지되는 모습이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부드러운 세정력과 풍부한 보습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DEFI' 기술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제품에 고객의 아이디어와 회원들이 선정한 캐릭터 디자인을 반영한 에뛰드하우스도 눈길을 끈다. 이 브랜드는 고객 아이디어 공모전 '스윗 아이디어'를 통해 직접 고객들의 아이디어를 접수해 실제 제품으로 출시했다. 시즌1 우승작은 귀여운 토끼 캐릭터가 접목된 네일 제품 '버니네일'(오른쪽)로 어플리케이터에 토끼귀 모양을 적용해 아기자기한 디자인은 물론 실용성도 높였다. 특히 버니네일이 에뛰드하우스 전문가의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제품화 되는 과정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품 디자인 시안 후보를 두고 회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이 공모전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과 제작 과정에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의 일환으로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예은기자 hjang9404@metroseoul.co.kr

불황 속 명품 티셔츠 인기

희소성 있어 판매 급증

경기불황 속에서도 티셔츠는 명품 바람이 불고 있다. 흔치 않은 명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가방보다 저렴하면서 희소성이 있는 티셔츠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21일 의류 수입업체 신세계인터내셔날에 따르면 올 6월부터 입고된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지방시의 가을·겨울 티셔츠 판매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로트와일러 스웨트셔츠와 티셔츠, 다곱무늬 스웨트셔츠는 이미 입고된 물량이 모두 판매됐고 울봄 느라비 별에서 온 그대'에서 배우 전지현이 입어 화제를 모은 밤비 프린팅의 스웨트셔츠와 티셔츠 또한 남아 있는 물량이 많지 않다.

스웨덴 컨템포러리 브랜드 아크네 스튜디오의 티셔츠도 인기다.

아크네 스튜디오의 보고가 새겨진 더블넥 디자인의 플러스 티셔츠는 블랙과 화이트 색상이 이미 전량 판매됐다. 기본 스타일의 티셔츠와 저지 티셔츠도 50~80%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브랜드 겐조와 타이거, 눈동자 스웨트셔츠는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박지원기자 gee@

미리 보는 '가을남자' 스타일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며 입고자가 큰 요즘이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 남성들의 경우 밤낮으로 달라지는 기온 때문에 옷차림에 고민이 많을 터. 가을 아우터룩 준비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때 이너로는 가디건이나 니트로 매치하거나 셔츠와 티셔츠를 함께 입는 것이 현명하다. 스타일에 힘을 주고 싶다면 색감이 뚜렷한 아우터를 선택하고 바지와 이너의 톤을 맞춰 입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가을철 스포티한 디자인에서 벗어나 세련된 느낌이 더해진 스타디움 점퍼나 가죽 재킷도 눈여겨 볼만 하다.

캐주얼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빠질 수 없는 것이 스웨트 셔츠인데 누구나 손쉽게 연출할 수 있으며 특히 반바지와 궁합이 좋다.

아우터 제품 외에도 머플러, 스카프 등의 소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김학철기자 kimc@

천연벌집으로 만든 송편 카페 디저트 연구소 '싸작'이 추석을 맞아 꿀비 천연벌집 세트를 새롭게 선보였다. 벌집은 천연 상태의 꿀과 화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효소·프로폴리스·비타민·아미노산·천연의 유질·미네랄 등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석 선물용으로 제격이다. /싸작 제공

'특별추억 만들기' 신혼여행 DIY로

비교·예약 사이트 이용하면 편리

자유여행처럼 신혼여행을 스스로 준비해 떠나는 커플이 늘고 있다. 판에 박힌 듯 똑같은 패키지여행보다 자신들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트래블룩스 전문 쇼핑몰 소쿠리패스에서는 파리·런던·로마 등 유럽 9개국 13개 도시의 트래블패스와 관광명소 티켓 등 다양한 자유여행 상품을 현지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신혼여행객들이 선호하는 파리의 경우 소쿠리패스에서 뮤지엄패스를 구매하면 현지에서 입장료를 각각 구매하는 것보다 약 60.5 유로(약 8만 5000원) 저렴하다. 또 현지에서 티켓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신혼여행이 가능하다.

항공권 비교 사이트 스카이스캐너에서는 출발지와 목적지만 검색하면 1000개 이상의 항공사 항공권을 비교할 수 있다. 기간을 설정하면 최저 항공권 가격도 확인 가능하며 출국 6주 전에 예약하면 더 낮은 가격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예약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호텔스컴바인을 통해 숙박지를 결정하면 된다. 12만 개와 어림지 500만 개의 호텔 특가 상품이 제공되며 목적지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의 정보도 간단히 알 수 있다. 아울러 호텔 최저가 비교가 가능해 세계 유명 호텔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다.

어스토리는 다양한 나라와 도시의 여행정보를 제공해 예비 부부들의 신혼여행 계획 수립을 도와준다. 구글맵 위치정보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고 가이드북을 제작할 수 있으며 스마트기기에 가이드북을 다운받을 수도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감독
스티븐 소더버그
더닉 클라이브 오웬 주연
THE KNICK
8월 22일 [금], 밤 12시 첫방송
SCREEN
tcast

온라인몰, 추석 '대목' 잡기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온라인마켓들이 추석 '대목' 잡기에 나섰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기 추석 선물 세트를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에 내놓거나 전문 큐레이터들이 엄선한 상품 기획전을 진행하는 등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 구성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롯데닷컴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덤 상품 선물세트를 내달 2일까지 대거 선보인다.

덤상품은 세트 상품을 구매 시 추가 상품을 제공하는 선물세트로 1+1, 3+1, 10+1 등 대량주문 시 실속을 챙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쇼핑몰 옥션의 유아동의류 전문관 '키즈 가로수길'은 퓨전 한복을 최대 47%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조코벨 리버티 원단 아동한복(2만9900원)'과 '보디코까 리버티 원단 퓨전한복(1만7300원)' 등 활동성이 좋은 반팔·반바지 한소매·원피스 등의 퓨전 개량한복을 만나볼 수 있다.

소셜커머스 업계도 추석 기획전에 동참이다.

쿠팡은 각 분야의 전문 큐레이터들이 엄선한 상품들로 구성된 '추석 선물세트 기획전'을 내달 1일까지 진행한다. 과일과 한우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인기 선물세트와 함께 열대과일·잼·치즈 등 이색 선물세트 등으로 구성됐다.

필리핀산 골드망고(10입)는 3만6000원에, 제스프리 키위 선물세트(2.45kg)를 1만8900원에 판매한다. 파인애플과 자몽으로 구성된 '열대과일 선물세트(4.5kg)'는 1만9500원, '머스크메론' 추석 선물세트는 무게에 따라 1만9900원~2만49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기획전 기간 동안 곶감·과일·건강 선물세트 등 인기 명절 상품을 높은 할인율로 한정 판매하는 '골든딜 이벤트'를 오는 2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매일 두 차례 실시한다.

CJ오쇼핑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CJ오클락은 지난 18일부터 3주간 추석 기획전과 프로모션을 잇달아 선보이는 '추석선물대전' 행사를 벌이고 있다.

홍삼·한우 등 추석 인기 선물을 30~80% 특가에 판매하며, 1만원으로 구입 가능한 특가 선물세트를 21일부터 31일까지 선보인다.

이 외에 온라인 캐시백 웹사이트 이베이츠는 해외 직구족들을 겨냥해 '미리 준비하는 추석 선물 기획전'을 마련했다. 시세이도 미스트, 바디로션 등으로 구성된 뷰티세트, 고급 향초나 화장품, 고급 차와 커피 세트 등을 선보이며 최대 8%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혜민기자 ·····

에너지 절약 동참 '착한 외식업체'

각종 기획·참여 행사 등 나서 고객 호평

매년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이다.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했던 2003년 8월 22일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2004년 제정됐다.

올해 '제11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외식업계의 에너지 절약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고객들의 참여형 행사를 기획해 호평을 받고 있다.

먼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아웃백)는 22일 오후 9시부터 에너지시민연대와 함께 대국민 불 끄기 운동인 '불을 끄고 별을 켜다' 행사의 일환으로 전국 108개 매장의 조명을 10분간 소등한다. 또 대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에너지 절약 실천 인증샷을 찍어 아웃백 페이스북에 올리면 10명을 추첨해 아웃백 1만원 디지털금액권을 증정한다.

도미노피자는 에너지 절약 행사가 열리는 행사 현장에 피자 제조시설이 탑재된 도미노 파티카(Party Car)를 보내 즉석에서 구운 따뜻한 피자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 진행됐으며 22일 안산시청 주최 '시민이 에너지다' 와 27일 에너지기후행동캠프 기획단 주최 '2014 그린라이트를 켜자' 행사장에도 파티카가 출동한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22일 서울시내 50여개 매장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35분간 외부 간판과 일부 조명을 소등한다.

지난달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자체적으로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를 '그린 아워(Green Hour)'로 지정해 매장 정가 주변의 일부 조명을 소등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감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8월 한달간 카페베네 측에서 선정한 수도권 매장 5곳을 직접 방문해 매장 내 에너지손실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커피 전문점 드롭탑은 오는 31일까지 명동점, 강서구청점, 강남아이파크점, 상암DMC점 등 주요 직영 매장에서 오픈 시간부터 오전 11시까지 에어컨을 끄고 일부 조명을 소등하고 있다. 또 이 시간대에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 전원에게는 사이즈 업그레이드 혜택을 우선로 제공하고 있다. /김현정기자 ·····@metroseoul.co.kr

세계 최초로 선보인 유모차 2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르웨이 프리미엄 유아용품 전문업체 스토케 코리아가 '스토케 익스플로리 블랙앤화이트 스페셜 에디션' 출시 행사를 열었다.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선보이는 이 행사는 블랙컬러에 화이트 핀스트라이프 패턴이 가미된 세련된 디자인으로 부모와 아이의 스타일에 맞추어 퍼서너블한 연출이 가능하다. /손진영기자 ·····

환절기 아이 건강 '조심'

6세 미만 65% 이상이 호흡기 질환 앓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환절기가 찾아오고 있다. 이때는 아이들 건강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소아 중 65% 이상이 환절기에 호흡기 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 질환은 공기 중에 포함된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몸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제1 면역력이 이를 방어하는데 아이들의 면역체계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 어른보다 호흡기 질환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

대표적으로 감기는 코와 인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원인은 바이러스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일수록 감기에 자주 걸리며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또 감기가 3일 이상 지속되면 폐렴 등의 추가 질환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며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고 코와 목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아울러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발열과 몸살 등 전신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환절기인 10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발생 빈도가 높으며 전염성이 강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 단체 생활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

조인나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체온을 유지하면서 실내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호흡기 질환에 걸린 아이들의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신속히 진료를 받아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

"일하는 주부는 고달프다"

워킹맘증후군으로 손목·무릎 통증 심해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는 505만 정도다. 하지만 10가구 중 8가구 이상에서 워킹맘이 가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10명 중 6명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가사일을 하는 데 여가 시간을 쏟는다.

이렇게 직장을 다니며 가사를 책임지는 워킹맘들은 보통 온몸이 쑤시고 소화가 잘 안되는 '워킹맘증후군'에 시달린다.

워킹맘증후군을 앓고 있는 엄마들이 가장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는 손목이다. 가사를 돌보며 워낙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은 물론 컴퓨터 사용으로 손목이 쉴 틈이 없어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이를 안거나 업어야하는 워킹맘들의 무릎도 무리가 많이 간다. 통증이 심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 각종 관절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게다가 스트레스가 쌓아 위염에도 쉽게 걸린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금방 채워지는 것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신경성 위염을 의심해야 한다. 또 신경성 위염은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병원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해야 한다. /황재용기자

"연하남 역할 지금하면 '사랑과 전쟁'"

|'트로트의 연인'으로 전역 신고한 지현우|

배우 지현우(30)는 연하남 열풍의 중심에 있었다. 애지원과 함께 출연한 옴니버스 다이어리 '최강 피와 호흡을 맞춘 '달콤한 나의 도시'는 지현우를 각인시킨 대표작으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 전역한 후 첫 작품으로 선택한 KBS2 '트로트의 연인'에선 5살 어린 정은지의 연인으로 출연하며 연하남 이미지를 벗었다.

그는 연하남 세대교체에 대해 "당연한 일이고 그 배우들 나이에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며 "지금 내가 연하남을 하게 되면 '사랑과 전쟁'이 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이 나를 알아보고 내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일이 생겼다"며 "유은미(리얼역)양과 연기하는 걸 보고 그런 것 같다"고 새로운 팬을 얻은 소감을 전했다.

정은지를 최춘희 역에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연기자 정은지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었고 에이핑크에서도 메인 보컬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최춘희는 노래를 잘하고 에너지가 넘치죠. 정은지가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제 친구들은 농담으로 가수 일리의 거미를 추천하기도 했었죠.(웃음) 정은지가 마냥 어리지 않아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배우로서도 감성이 좋고 감독과 작가가 잘 다듬는 다면 좋은 연기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품 속 두 사람의 애정신은 시청자의 연애 세포를 자극했다.

"말랑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극 중 서로를 쓰다듬는 스킨십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도 그런 장면들을 좋아해요. 방안에서 연인과 함께 요리를 하거나 괜히 발로 툭툭 건드리는 거 있잖아요. 실제 연인들이 할만한 거요. 감독에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애정신을 맛있게 소화하려고 연구하진 않아요. 계산적인 것보다는 상대방을 더 느끼고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죠."

그는 "진심을 다해 연기하려고 했다"면서도 "뮤직드라마를 기대했었는데 극 후반 내용이 무거워져 아쉬웠다"고 자평했다.

"세부까지 대본을 봤을 땐 뮤직드라마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전역 후 첫 작품이라 애착도 컸고 많은 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죠. 그런데 음악드라마가 아니어도 기획 의도처럼 웃음을 주는 밝은 드라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후반으로 갈수록 극이 무거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독에게 말했었죠. 장준현 역할을 소화하는 데에 있어선 코믹과 진지한 걸 명확히 구분해 연기하려고 했어요."

> 어린 친구들이 알아봐
> 최춘희 역에 정은지 추천
> '해품달' 같은 사극 하고파

군대는 그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전역한 후 자신의 핀 키워드를 '배워가기'라고 정의했다. "현장을 이끌어 가야 하는 사람으로 제 위치가 바뀌었어요. 책임감이 커지니까 포용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죠. 군대에 있을 때 무언가에 올인하기로 각오했죠. 입대 전에는 가수 활동과 연기를 병행했는데 이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배우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도 느꼈다. "배우고 싶다는 갈망이 커졌어요. 제 작품을 통해 누군가가 힘이 된다면 배우로서 행복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극을 좋아하는데 정통 사극보다는 '해를 품은 달' 느낌의 사극을 해보고 싶어요. 디지털 바보거든요. 그런 아날로그 장르 쪽엔 자신이 있습니다."

/전효진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초가을 가요계 형님들 몰려온다

슈퍼주니어·박재범·MC스나이퍼·김종민·MC몽 새앨범

슈퍼주니어 MC 스나이퍼

올 여름 걸그룹이 가요계를 점령했다면 초가을에는 형님들이 대거 몰려온다.

글로벌 한류 제왕 슈퍼주니어를 비롯해 MC 스나이퍼와 코요태의 김종민, 박재범, MC몽 등이 새 앨범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2년 2개월 만에 컴백을 알린 슈퍼주니어는 다음달 1일 정규 7집 'MAMACITA(아마시타)'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그간 슈퍼주니어 멤버들은 슈퍼주니어-M, 슈퍼주니어 동해&은혁 등 다양한 유닛 및 개별 활동을 통해 무대에 서 왔다. 하지만 멤버 전원이 뭉치는 것은 2년여 만이기 때문에 이번 마마시타 활동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앨범을 통해 한층 성숙해진 슈퍼주니어의 매력과 음악적 깊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재범도 1년 6개월만에 정규 앨범 '에볼루션'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지난 13일 선공개 한 '약속해'는 박재범이 팬들을 향한 마음을 남녀 간의 어른스러운 사랑에 빗대어 표현했다.

코요태의 김종민은 3일 세 번째 솔로곡 '살리고 달리고'로 컴백을 앞두고 있다. '살리고 달리고'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히트곡 '귀요미송'과 '라면먹고갈래?', '깃발맹이' 등을 만든 프로듀서 단디가 작사·작곡·프로듀싱한 곡이다. 존니가 공동작곡에 참여했다.

이 곡은 한국형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이다. 연령층 구분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웃음을 자아내는 노랫말과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매력적이다.

김종민은 2011년 4월 첫 솔로 싱글 '오빠 힘내요'를 발매했으며 두 번째 싱글 '두근두근'을 2012년 5월 발표한 바 있다.

대한민국 1세대 래퍼 MC스나이퍼도 다음달 새 앨범을 발표하고 컴백한다.

MC스나이퍼는 "많은 곡을 썼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번 앨범은 그 쓰레기통에 있던 5곡을 꺼내어 만들었다"며 "음악과 사람에 다친 나를 음악으로 다시 치료하게 해준 트랙들"이라고 새 앨범을 소개했다.

MC몽은 9월 또는 10월 컴백을 목표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

/정의웅기자

김준수 285억 투자 '호텔 사장'

내달 서귀포에 개관… 연예계 신흥 부동산 재벌로

JYJ의 김준수(사진)가 자신 소유의 호텔 개장을 앞두고 연예계 신흥 부동산 재벌로 주목받고 있다.

김준수는 다음달 25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에 토스카나 호텔을 개장한다. 부지면적 2만1026㎡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61개 객실과 풀빌라 4개 동을 보유하고 있다. 호텔 측은 향후 인접 추가 부지에 약 200여 실을 증설할 계획이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준수는 이 호텔에 285억원을 투자했다. 토스카나호텔은 일반적인 대형 체인 호텔과 달리 작지만 독특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과 서비스로 차별화한 부티크 호텔이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야외 공연장과 사계절 수영이 가능한 야외 수영장이 호텔의 자랑이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건축 양식을 도입해 낭만적인 풍경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스카나호텔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용호 조각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한편 클래식 및 재즈 공연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준수는 호텔 완공과 함께 연예계 부동산 소유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재벌닷컴에 따르면 100억원대 빌딩을 소유한 연예인은 18명으로 조사됐다.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650억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회장이 510억원, 서태지가 440억원, 전지현이 230억원으로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 기준으로는 각각 209억2000만원, 193억2000만원, 175억8000만원, 13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준시가는 토지 가격에 건물 건축비와 건물 위치, 노후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평가된다. 김준수의 토스카나호텔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이들의 빌딩과 비교 기준이 다소 다르다. 그러나 투자금액만을 놓고 비교할 경우 김준수는 연예인 부동산 부자 순위 톱 4에 올라설 수 있는 정도다.

/탁순호기자

SBS 일일극 '사랑만 할래' 출연진 이규한·남보라·임세미·서하준·김예원·윤종훈(왼쪽부터) SBS 제공

'사랑만 할래', '썸' 타나요?

세 커플 우정… 출생의 비밀·돌싱녀·연상연하 편견 깬다

SBS 일일극 '사랑만 할래' 세 커플(서하준·임세미, 이규한·남보라, 윤종훈·김예원)이 사랑이 아닌 우정으로 뭉쳤다.

21일 일산 SBS에서 열린 드라마 기자간담회에서 세 커플은 비슷한 나이 동료들끼리 '썸' 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동료애가 생기고 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서하준은 "동료 여자 연기자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됐다"며 "가끔 문이 열릴 때마다 깜짝 놀란다. 역시 우린 동료구나 싶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임세미는 "굳이 사귀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니 이젠 눈만 봐도 '어제 잠을 잘 못 잤니?'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작품에서 각각 김태양과 최유리를 연기 중이다. 출생의 비밀과 부모의 반대로 사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보라는 "처음에 우리 나 예뻤지만 지금은 살기 바쁘고 잠자기 바빠 민낯으로 다니게 됐다. 미안하다"며 "잘 지냅시다. 모두!"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여섯 출연자 가운데 맏형인 이규한은 "여자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봐야 내 돈만 많이 든다"며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한다"고 썸 탈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샛별(남보라)과 재선계 재벌 최재민(이규한)은 돌싱녀와 싱글남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김샛별은 10대 시절 아이를 낳아 혼자 기르는 미혼모다. 두 사람의 관계는 최재민이 김샛별의 딸 김수아(한서진)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약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윤종훈은 "오래 같이 있으니까 있던 썸도 달아나는 것 같다"며 "지금은 동료애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예원은 "정곡을 찔렸다. 썸보다는 정이 쌓인다"고 답했다. 김우주(윤종훈)·홍미래(김예원)은 극 중 연상연하 커플이다.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은 예물 문제로 갈등할 예정이다.

'사랑만 할래'는 혈육과 입양, 부유와 가난, 연상연하의 편견을 이겨낸 여섯 남녀의 사랑을 담은 가족드라마다.

/전효진기자

될 것도 안 되는!
네 남자의
사나운 로맨스
tvN 금토드라마
아홉수 소년
9 19 29 39
매주 금,토 저녁 8시 40분 tvN 방송 / 8월 29일 첫방송
김영광 | 경수진 | 오정세 | 유다인 | 육성재

원작 매력 못 살린 공산품 블록버스터

film review
/김민호기자 salon@metroseoul.co.kr

기술력·볼거리 내세웠지만 주제 와닿지 않아

■닌자 터틀

뉴욕의 하수구에는 거북이들이 살고 있다. 유전자 조작 실험으로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된 네 거북이 레오나르도, 도나텔로, 미켈란젤로, 라파엘이 그 주인공이다.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악당과 맞서 싸우며 뉴욕을 지킨다.

특종을 향한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기자 에이프릴 오닐(메긴 폭스)은 어느 날 우연히 거북이들의 존재를 알고 그들의 정체를 뒤쫓는다. 그 과정에서 도시를 위험할 악당들의 무시무시한 음모와 마주하게 된다.

'닌자터틀'은 인기 코믹스 '닌자 거북이'의 새로운 실사판 영화다. 1984년 저예산의 코믹북으로 첫 등장한 '닌자 거북이'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TV 애니메이션과 실사판 영화로 제작돼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현재는 미국의 어린이전문 채널 니켈로디언에서 '돌연변이 특공대 닌자 거북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닌자터틀'은 최첨단의 기술력과 화려한 볼거리를 내세웠다. 할리우드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모션 캡처(배우들의 연기를 바탕으로 CG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기술)를 바탕으로 주인공 거북이들을 만들어냈다.

르네상스 화가의 이름을 딴 거북이들과 스승 스플린터, 그리고 조력자 에이프릴 오닐과 악당 슈레더까지 원작의 주요 캐릭터들이 모두 등장해 그 틀을 이어간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 빠질 수 없는 스케일 큰 액션과 폭파 장면도 등장한다.

하지만 영화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네 거북이의 캐릭터가 이질적으로 다가온다.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표현된 거북이들에게는 만화와 같은 친근함이 없다.

이들을 10대 측인 소년들처럼 묘사하려는 영화의 설정도 잘 활용되지 못한다. 어릴 적 '닌자 거북이'를 보며 즐거워한 추억이 있는 관객들에게는 '닌자터틀' 속 거북이들이 그저 낯설게만 느껴질 것이다.

영화의 주제는 네 거북이와 에이프릴 오닐이 악당들과 맞서면서 진정한 영웅과 진짜 기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단조로운 스토리라인으로 인해 이런 주제가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영화를 보고 난 뒤 기억에 남는 것은 액션과 폭파 장면들뿐이다.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연출한 마이클 베이가 제작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다운 블록버스터 공산품이다. 12세 이상 관람가. 8월28일 개봉.

유해진 '타짜2' 캐스팅 이유는?

원작에 없는 인물 - 조승우 이어 최승현과 콤비

배우 유해진(사진 오른쪽)이 영화 '타짜-신의 손'(감독 강형철)에 출연하게 된 이유가 공개됐다.

강형철 감독은 "주인공 대길의 인간적인 심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노와줄 수 있는 연물을 찾았다. 고광렬 이외의 연물은 떠오르지 않았다"며 유해진을 캐스팅한 이유를 밝혔다.

유해진은 지난 2006년 개봉한 전작 '타짜'에서 조승우가 연기한 주인공 고니의 파트너인 고광렬 역으로 코믹한 캐릭터를 선보였다. '타짜-신의 손'에서는 고니의 조카로 최승현(왼쪽)이 맡은 주인공 대길의 파트너로 등장한다.

사실 고광렬은 동명의 원작 만화에는 나오지 않는 캐릭터다. 8년 만에 다시 고광렬 역을 맡은 유해진은 최승현과 함께 남다른 콤비 호흡을 선보이며 극에 재미를 더했다.

유해진은 "고광렬은 대길에게 화투 기술뿐만 아니라 몸소 터득한 인생의 지혜까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사제 관계 같은 각별함이 있다"고 말했다. 최승현은 "좋은 에너지를 받으며 즐겁게 촬영했다. 특히 유해진 선배님과의 촬영에서 많은 도움과 배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타짜-신의 손'은 삼촌 고니를 닮아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손재주와 승부욕을 보이던 대길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타짜 세계에 겁 없이 뛰어들면서 벌이게 되는 한판 승부를 그린 영화다. 다음달 3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신민아·조정석 "우리 결혼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서 신혼부부 연기

배우 신민아와 조정석이 10월 개봉 예정인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감독 임찬상)에서 신혼부부로 변신한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4년 동안의 연애 끝에 이제 막 결혼한 영민과 미영의 신혼생활을 그린 작품. 이번 작품에서 조정석과 신민아는 대한민국 보통 남녀인 영민과 미영 역을 맡았다. 현실을 그대로 옮긴 듯한 실감나는 신혼부부의 모습을 그렸다.

극중 영민은 시인을 꿈꿨지만 현실은 9급 공무원인 인물이다. 조정석은 신혼의 달콤함을 즐기는 새신랑의 행복한 모습부터 삼삼과 다른 결혼 현실에 대한 고뇌까지 보여주는 캐릭터의 변화를 능청스럽고 유쾌한 연기로 보였다.

신민아가 연기한 미영은 영민에게 여신처럼 보였으나 결혼 이후 점점 평범해져 가는 아내다. 애교 넘치고 사랑스럽다가도 때로는 잔소리를 퍼붓는 현실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이명세 감독이 박중훈, 최진실 주연으로 1990년에 발표한 동명의 로맨틱 코미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효자동 이발사'의 임찬상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장병호기자

문소리 사할린영화제 참석

韓 여배우 최초 - 베니스서도 초청 받아

배우 문소리(사진)가 한국 여배우로는 최초로 러시아 사할린국제영화제에 참석한다.

사할린국제영화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2011년 처음 막을 올린 국제영화제다. 그 동안 자아장커 감독과 크리스토퍼 도일 촬영감독 등을 초청해 아시아와 인연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코리안 서스펙트 특별전'을 통해 한국영화들을 소개했다.

22일 개막하는 올해 영화제에서는 문소리가 주연한 세 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문소리를 세계적인 여배우로 알린 '오아시스', 대한민국 핸드볼 국가대표팀의 실화를 그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제63회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하하하' 등이다. 문소리는 영화제 기간 동안 각 작품별로 관객들과 대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문소리는 뉴욕아시안영화제에 폐막작으로 선정된 '만신'으로 뉴욕을 찾은 바 있다. 오는 9월에는 홍상수 감독의 신작 '자유의 언덕'으로 베니스국제영화제를 찾을 예정이다. 또한 10월2일 개막하는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본 배우와 다나베 켄과 함께 개막식 사회자로 선정됐다.

/장병호기자

건반으로 만나는 '마에스트로'

정명훈 생애 첫 피아노 리사이틀… 10월부터 전국투어

지휘자 정명훈(사진)이 생애 최초로 피아노 리사이틀을 연다.

정명훈은 10월 5일 창원 성산아트홀을 시작으로 13일 대구 시민회관, 12월 16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8일 대전 예술의전당, 20일 고양 아람누리에서 연주회를 연다.

피아니스트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지만 정명훈은 5세 때 피아노로 음악인생을 시작했다. 15세 때 정트리오로 미국과 유럽에 연주여행을 다녔고, 21세가 되던 1974년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2위를 하며 피아니스트로 주가를 높였다.

1976년 미국 뉴욕청년심포니를 지휘하면서 포디엄에 오르기 시작해 1979년 로스앤젤레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로 본격적인 지휘자 커리어를 쌓아갔다. 이후 정명훈은 소수의 실내악 무대에서만 피아노 연주를 했다.

지난해 둘째 아들 정선씨가 독일의 유명 레이블 ECM에 프로듀서로 입문하면서 첫 피아노 앨범 '정명훈, 피아노'를 출시했다. 정명훈은 "예순이 되면 일로서의 음악을 그만두고 진짜 음악을 하고 싶었다. 내게 피아노는 진짜 음악이다"고 밝히며 이번 리사이틀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리사이틀 전반부는 지난 앨범의 수록곡, 후반부는 쇼팽의 작품들로 꾸민다.

지난해 음반에는 둘째 손녀에게 선유비는 드뷔시의 '달빛'을 비롯해 쇼팽의 녹턴 C샤프 단조,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차이코프스키의 '가을 노래', 슈베르트의 '즉흥곡 G플랫 장조' 등 유명 곡들을 담았다. '가을 노래'는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연주했던 곡이다.

앨범 발매 당시 정명훈은 "이번 앨범 작업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또 녹음을 할지도 모르겠다. 만약에 한다면 다음 앨범은 쇼팽의 작품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명훈은 서울 공연의 개런티 전액을 2008년 설립한 비영리재단 미라클오브뮤직에 기부한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25일 시작된다. 문의 1544-1555

/유순호기자 spine@metroseoul.co.kr

함춘호가 기타로 재해석한 명곡

내달 21일 '레전드 100 콘서트' 무대

기타리스트 함춘호가 한국 대중음악사에 영향을 미친 명곡들을 재해석한 무대를 선사한다.

다음달 21일 마포아트센터에서 '레전드 100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공연한다. 조용필, 신승훈, 이문세 등 유명 가수들의 음반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린 함춘호는 국내 최정상급 기타 세션맨으로 꼽힌다.

지난 2월 멜론이 한국 대중음악사를 재조명한 캠페인 '레전드 100 송'에서 선정된 대중가요 명곡 가운데 함춘호가 선택해 편곡한 곡들이 이번 무대에 오른다. 1964년 나온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등 시작으로 2012년 12월까지 발매한 곡 중 선정됐다.

유명 연주자인 김정렬(베이스), 신석철(드럼), 박용준(피아노), 오화평(키보드), 김정준(퍼커션)과 밴드를 꾸린다. 특별 게스트의 무대도 펼쳐진다.

공연 관계자는 "대중성과 음악성 모두를 고려, 선곡해 함춘호가 새롭게 편곡했다. 재미있는 백선도 곁들인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순호기자

이승철 잠실야구장 '그날에' 시창

독도 이어 하버드대서도 통일프로젝트 진행

가수 이승철(사진)이 탈북청년합창단 위드유와 함께 야구장 시창에 나선다.

이승철과 20명의 위드유 단원은 23일 잠실야구경기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 앞서 통일송 '그날에'를 부른다.

이승철은 "통일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스포츠 팬들을 찾게 됐다"며 "'그날에'는 물론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으로 훌륭하게 성장한 아름다운 청년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날에'는 분단의 아픔으로 얼룩진 한반도가 다시 하나되길 기원하는 통일 노래다. 그래미상을 수상한 엔지니어 스티브 핫지, 세계적인 음악가 양방언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이승철과 합창단원들은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 독도에서 이 노래를 처음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승철은 탈북청년합창단과 통일 염원 프로젝트인 '온 캠페인(ON 캠페인 One Nation Campaign)'을 진행 중이다. 이 캠페인은 독도에서 통일송 '그날에'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29일 미국 하버드대에서 무료 자선공연을 개최한다.

/유순호기자

"'사랑의 미로' 내 인생 변화시킨 노래"

최진희 데뷔 30주년 기념 세종문화회관 공연

가수 최진희가 국민 애창곡 '사랑의 미로'라는 이름으로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다.

최진희는 21일 여의도동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0주년 기념 특별공연' 기자회견에서 "'사랑의 미로'는 인생을 변화시킨 노래고 여러분이 많이 아껴주신 만큼 삶의 큰 의미로 남아있는 노래"라고 말했다.

최진희는 이날 '사랑의 미로'에 얽힌 탄생 비화를 공개했다. 초등학교 시절 '너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인상깊게 들었던 그는 무명 시절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다 그 노래의 작곡가 김희갑을 만났다. '너의 사랑'을 다시 부르고 싶다고 하자 김희갑은 가사를 바꾸고 원곡을 리메이크한 '사랑의 미로'를 최진희에게 선사했다.

최진희는 "정식 데뷔하기 전 7~8년 정도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노래했다. '사랑의 미로'는 많은 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된 노래다"고 애정을 나타냈다.

1983년 '그대는 나의 인생'으로 데뷔해 왕성하게 활동해온 그는 '사랑의 미로', '그대는 나의 인생', '물보라', '여심' 등 여러 곡을 히트시키며 1985년부터 1993년까지 10년 연속 10대 가수상을 받았다.

2006년부터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 인근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며 가요계와 거리를 둔 생활을 해왔다. 2009년 1월 어머니가 별세하면서 목소리를 못 낼 정도로 정신적 방황을 겪기도 했다.

그는 "한동안 실어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그래서 공백이 있었다"며 "가수는 노래를 해야 삶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 다시 열심히 노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다음달 9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하는 30주년 기념 공연에는 히트곡과 함께 어머니를 추억하는 무대를 꾸민다. 또 무명 시절 자주 불렀던 팝송과 라틴 음악을 선보인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등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재즈로 편곡해 들려준다. 문의 1544-1813

/유순호기자

최진희가 21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데뷔 3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피부에 1.5ℓ 이상의 물을 마시면 피부 각질층의 수분 보유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매일 충분히 물을 마셔야 합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5	4				
	2					4	8	3
4		9			8			
9		2		7			3	
			3		5			
	7			8		1		4
			6			9		8
7	9	1					2	
				1	3			7

9	6			5	1			
	5				4		1	
8		2		3				
		7						2
	9	8	7		2	3	4	
4						9		
				4		5		1
	4		3				2	
			5	7			9	3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 - 보누스
「엔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잊혀진 최초의 신식무기 공장

권기봉의 도시산책 <12>

삼청동길을 따라 삼청공원이 있는 북쪽으로 걷다 보면 어내 한국금융연수원에 닿는다. 그리고 정문을 지나 왼쪽으로 들어가면 주변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한 채의 건물을 만날 수 있다. 구한말 무기 제조를 담당하던 관청인 기기국에 속해 있던 번사창이다. '번사'는 흙으로 만든 거푸집에 금속용액을 넣어 주물을 만들 때 이리저리 보래를 뒤지는 것을 뜻하는데, 번사창은 조선왕조의 마지막 대형 무기공장이자 최초의 신식무기 공장 가운데 하나다.

번사창 등에 들어선 것은 1876년 강화도조약과 깊은 관련이 있다. 강화도조약의 서막을 알린 운요호사건 때 일본의 근대적 군사력에 놀라 불평등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던 조선이 신식무기의 필요성에 눈을 뜬 것이다. 이에 조선 정부는 강화도조약 5년만인 1881년, 그나마 우군이었던 청나라에 서양식 총포와 탄약 등 신식무기 제조법을 배워오도록 영선사를 파견한다.

그런데 영선사 일행은 청나라에 1년도 채 머무르지 못했다. 양단 부족한 재정이 걸림돌이 되었고, 조선에서 임오군란이 터지면서 급거 귀국길에 올라야만 했다. 근대적 과학기술과 신식무기 제조법을 마스터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으나, 그래도 1883년 번사창을 비롯한 무기공장 착공에 들어가 이듬해 완공을 보았다.

조선이란 나라가 확실히 기울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이 대목이다. 어렵사리 공장을 돌리는 듯했지만 완공 10년 뒤인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과 뒤이어 청일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일본이 조선 내의 모든 무기공장을 폐쇄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아예 문을 닫아걸게 했다.

그 뒤 일제강점기엔 세균실험실로 용도가 바뀌었고, 해방 뒤에는 중앙방역연구소와 국립사회복지연수원 등으로 쓰이며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버린 번사창. 한국 최초의 근대적 공장, 그 중에서도 신식무기 공장일 뿐만 아니라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조선시대 무기고이긴 하나 지금은 문화재 관련자 외에 일부러 찾는 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사주학 공부하면 제질 알수 있나요
인체 활용 학문, 처방에도 도움 가능

Q zkvpemehd 여자 87년 음력 4월 18일 새벽 5시

국립대를 나와 약사입니다. 87년 음력 4월 18일 생입니다. 약사라서 약용식물에 대해 연구하다가 사상체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매우 심오하게 느껴져서 질문을 드리는데 사람의 인체의 사주가 비례하면서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주 학을 공부하면 체질과 건강에 대해서도 깊이 알 수 있는지요? 또한 제가 잘 해 나갈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고 있게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매일 지면을 통해 보는 선생님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A 명월(明月)의 천을귀인(天乙貴人)을 두고 있어 항상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장생(태어나서 성장함)으로 학문을 즐기고 문장이 수려하여 작자나 교육계통에 인연이 깊습니다. 칠석계금(錯綜鉢金, 잠겨있는 것을 열쇠로 듦)으로 적덕(積德)이 하므로 남에게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우수함이 있으니 사상체질 공부를 하여 큰 덕함을 볼 수 있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이 우주자연현상에 따라 사시사철 색깔 특기(氣質)가 다를 뿐만 아니라 생·노·병·사·희·노·애·락이 다른 것은 생명이 발생하는 환경(해와 시)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봄에는 따사로운 봄이 만물을 성장 시키고 여름에는 수분으로 생명체를 생기(生氣)시키고 가을에는 서조풍(西風·서쪽에서 불어오는 미른 바람)으로 열매를 꽃게 하며 겨울에는 정신계(精神系)를 근원으로 만물을 조절하여 적당케 합니다. 이와 같이 자연은 운동으로 순환하며 계절에 따라 만물이 생·노·병·사 시기가 각양각색으로 다르게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인간 역시 태어 날 때 계절적인 영향을 받아 각각 다른 체질로 나타나는데 역론(易論·사주학 원리) 24절기를 관찰하여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 인체에 작용관계를 활용하는 학문입니다. 각자가 부여받은 사주(명리)에 명국(命局) 생월생시에 따라 사람마다 심상과 육체건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체기·뼛사가 다르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학에서도 명리를 가르치며 의학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사상체질 오운육기(五運六氣)를 배우고 있으므로 처방하는데 적중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오운육기란 10천간과 12지지가 천지순행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음양오행에서 인체를 소우주로 보고 사람이 태어난 계절에 따라 체질이 각분됨을 인지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22일 (음 7월 27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자녀에 부담되는 일은 벌이지 말라. 60년생 불안한 마음은 병만 부른다. 72년생 결쇠를 쥐고 뒷굴 때 행동 잘 하라. 84년생 청춘을 즐사르고 싶은 일이 생긴다.

소: 49년생 생각을 바꾸면 외로움은 없다. 61년생 귀한 도움에 묵은 숙제는 야무지게 풀어라. 73년생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85년생 근거 없는 소문에 속지 않도록~

호랑이: 50년생 돈 들어가는 일은 삼가라. 62년생 운기가 풀려 만사가 순조롭다. 74년생 결단은 기회를 잊은 다음 대려라. 86년생 공들인 애썸이 드디어 마음의 문 연다.

토끼: 51년생 잡지는 회복 기미가 보인다. 63년생 긍정의 힘으로 거침없는 하이킥~ 75년생 뜻이 부지면 몸이라도 던져야 한다. 87년생 상사에 은혜 입었으면 답례하라.

용: 52년생 자녀문제 냉정히 판단하라. 64년생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절의 기술이 필요하다. 76년생 남의 일에 나서지 말라. 88년생 작은 것 버리면 큰 것이 들어온다.

뱀: 53년생 묵은 빚 걱정이 생긴다. 65년생 적인들은 계면 지레한 것에 만족하라. 77년생 직장인은 위상이 올라갈 경사 생긴다. 89년생 잘 나가는 사람과 견주면 나만 힘 뿐~

말: 42년생 시대 변화에 순응할 것. 54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지평타 만는다. 66년생 기회가 왔을 때 존재감 보여주라. 78년생 보다 큰 그림 그리는 기회가 온다.

양: 43년생 안팎으로 웃음이 넘친다. 55년생 화가 나도 감정적 대응은 피하라. 67년생 조직의 짐 읽고 설지다간 큰코 다친다. 79년생 직장인은 선명함 이미지로 승부하라.

원숭이: 44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 56년생 재테 최소식에 근심도 사라진다. 68년생 바라던 일이 풀려서 아호~ 80년생 바람과 같은 진실이 찾아 나선 격이다.

닭: 45년생 어딜 가나 영혜로운 대우 받는다. 57년생 지도도 없이 길을 나서야 하는 형편~ 69년생 배우지 만만한 인날에 한숨 터진다. 81년생 자신감이 없는 길은 포기하라.

개: 46년생 입 빠진 독한 물 붓지 말라. 58년생 달콤한 말에 착잡이 많은 법이다. 70년생 경쟁자가 뛰니 자신부터 자려라. 82년생 일에 미치니 혁유가 후딱 간다.

돼지: 47년생 귀한 손님 접대할 일 생긴다. 59년생 걸으론 울지만 속으론 만족하는 격~ 71년생 일이 함께 갈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83년생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 즐겁구나.

'28년 만의 AG 금사냥' 좋은 징조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28년 만에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인천 아시안게임서 비교적 무난한 조에 편성됐다.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21일 오전 인천 하버파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조추첨을 했다. 이날 조추첨은 배드민턴, 세조, 카바디, 세팍타크로, 수구, 럭비, 핸드볼, 배구, 농구, 축구(이상 추첨 순서대로) 등 총 10개 종목이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와 A조에 편성됐다.

우리나라는 9월 14일 오후 5시 인천문학경기장에서 말레이시아와 1차전을 치르고 17일 오후 8시 안산 와스타디움으로 장소를 옮겨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붙는다. 마지막 3차전은 21일 오후 5시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리는 라오스전이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조추첨식에서 브라이언 시 쉐이 차이드 아시아축구연맹 경기담당관(왼쪽)과 최순호 FC서울미래기획단장이 축구 경기 조 추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 축구대표, 말레이시아·사우디·라오스와 한 조

16강전은 B조 1위 또는 2위와 치르게 되는데 B조에는 우즈베키스탄, 홍콩,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이 편성됐다.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광종 감독도 조편성 결과와 관련해 "무난하다"고 평가했다. 이 감독은 "일본,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북한 등이 피하고 싶은 국가였다"며 "추첨에서 바라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까다로운 국가가 하나 정도는 함께 편성될 것으로 봤다"며 "사우디아라비아를 꺾을 준비를 확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우승 경쟁국인 일본은 D조에서 쿠웨이트, 이라크, 네팔과 경쟁을 펼쳐 한국보다 힘든 승부가 예상된다. 북한은 중국, 파키스탄과 F조로 편성됐다.

이외에도 C조에는 오만, 팔레스타인, 타지키스탄, 싱가포르가, E조에는 태국, 몰디브, 인도네시아, 동티모르가, G조에는 UAE, 인도, 요르단이, H조에는 이란, 베트남, 키르기스탄이 편성됐다.

한편 개최국으로 일찌감치 A조 배치가 확정된 윤덕여 감독의 여자대표팀은 태국, 인도, 몰디브와 겨루게 됐다. B조는 일본, 중국, 요르단, 홍콩이 경쟁한다. 북한은 C조에서 베트남, 홍콩과 겨루게 된다.

/장병호기자 yoo@metroseoul.co.kr

'꿀벌 킬러' 손흥민 시즌 1호골 겨냥

도르트문트와 첫 경기… 세 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 노려

2014~2015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개막을 앞두고 골감각을 끌어올린 손흥민(22·레버쿠젠)이 정규리그 세 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을 향한 시동을 건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레버쿠젠은 24일 오전 1시 30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정규리그 1라운드 원정에서 맞붙는다. 도르트문트는 분데스리가에서 두 시즌 연속 준우승한 강호지만 손흥민에게는 즐거운 골의 추억이 많은 팀이다.

손흥민은 지난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두 차례 정규리그 맞대결에서 경기당 2골씩 총 4골을 쏟아냈다. 이 때문에 어느 팀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인 도르트문트를 개막전에서 만난 것은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손흥민은 지난 16일 알레마니아 발당게스하임(6부리그)과의 독일축구연맹(DFB) 포칼 1라운드(64강)에서 골을 기록한 데 이어 20일 새벽 끝난 코펜하겐(덴마크)과의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3-2 승리를 결정하는 결승골을 터트리며 예서은 발끝을 과시하고 있다.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2경기 연속골을 터트린 손흥민은 내심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3경기 연속골과 함께 리그 1호골을 노리고 있다. 이에 2012~2013 시즌(정규리그 12골), 2013~2014시즌(정규리그 10골)에 이어 세 시즌 연속 정규리그 두자릿수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준기자

손흥민 /AP연합

"류현진 재활등판 필요 없다"

순조롭게 회복 중

부상자 명단(DL)에 오른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재활 등판 없이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오를 예정이다.

MLB닷컴에 따르면 돈 매팅리 감독은 21일 "류현진에게 재활 등판이 필요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부상을 당한 투수는 마이너리그 팀을 상대로 컨디션을 최종 점검하는 재활 등판을 거쳐 빅리그 마운드에 오른다.

그러나 매팅리 감독은 류현진이 이런 수순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5월 견갑골 염증으로 DL에 올랐을 때도 재활 등판을 하지 않았다.

매팅리 감독은 "류현진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결국 마운드로 돌아올 것"이라며 "류현진은 이제 캐치볼을 시작했고, 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진은 14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6회초 B. J. 업튼을 상대하다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자진 교체됐다. 정밀검사 결과 오른쪽 엉덩이의 종둔근과 이상근에 염좌가 발견돼 15일짜리 DL에 올랐다. 류현진은 20~21일 연속으로 캐치볼을 하며 몸 상태를 확인했다.

한편 류현진이 선발 로테이션에서 빠진 다저스는 최근 5경기에서 1승4패로 부진을 겪고 있다. 다저스는 2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경기에 로베르토 에르난데스를 선발로 내세웠지만 1-4로 패했다. 에르난데스는 5이닝 4실점(3자책)했다.

다저스는 71승57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2위 샌프란시스코(66승 58패)에 3경기 차로 쫓기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

프로야구 전적 21일

■ 마산

팀				계
넥센	100	001	100	3
NC	000	003	20X	5

승 = 이민호(6승 2패 5세이브) 세 = 김진성(승 1패 23세이브) 패 = 한현희(9승 2패 2세이브) 홈런 = 김현수 12호 (6회1점·넥센) 박석민 27호 (7회3점·NC)

■ 대구

팀				계
두산	001	000	000	1
삼성	000	203	00X	5

승 = 차우찬(6승 1패) 세 = 임창용(5승 2패 26세이브) 패 = 노경은(3승 12패) 홈런 = 박해민 3호 (5회2점·삼성)

〈명량〉의 천행은
천오백만 관객 여러분입니다
20년 전 CJ는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안고
한국 영화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두려움 위로
때론 한국형 블록버스터라는 도전을
때론 사회적 움직임을
때론 전세계 상영이라는 희망을 띄워 보내왔습니다
지금, 1500만 역대 최대 관객이라는 기록은
한국영화를 아껴주신 국민 여러분과
좋은 영화를 위해 땀 흘려온 영화인들이 만들어주신
천행(天幸)일 것입니다
한 편의 영화가 흩어졌던 우리를 결집시키고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에,
〈명량〉에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
가슴 깊이 새기며
전 세계에 우리 문화의 국격을 높이는 영화로
보답하겠습니다
영화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CJ 엔터테인먼트
명량
최민식 류승룡 | 김한민 감독
절찬 상영중